동학농민혁명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광주전남항일활동 중심으로

2025년

10월 22일(수)

13:00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

주최·주관

전라남도 JeollaNamdo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후원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기념사업회

CONTENTS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광주전남항일활동 중심으로

개회
13:30~13:40

개회사 및 축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
이하윤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기념사업회장**

기조강연
13:40~14:40

김용옥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조선민중의 항일정신** ···· 11
전 고려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15:00~16:40

魏晨光 **청일전쟁 초기 일본군의 작전에 미친 동학농민군의 영향** ····· 19
산동대학교

김명재 **동학농민혁명과 영호도회소의 농민군활동**····· 31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기념사업회

박해현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항일 의병** ····· 48
초당대학교

박용규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한국독립운동의 시작** ····· 76
고려대학교

종합토론
16:50~17:50

좌 장 **김양식**(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조재곤 「**청일전쟁 초기 일본군의 작전에 미친 동학농민군의 영향**」에대한 토론문 ·· 95
서강대학교

임송본 「**동학농민혁명과 영호도회소의 농민군활동**」에 대한 토론문 ·· 98
남도학연구원

신민호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항일 의병**」에 대한 토론문 ····· 100
전라남도의원

한규무 「**2차 동학농민혁명과 한국독립운동의 시작**」에 대한 토론문··· 102
광주대학교

개회사 홍영기(한국학호남진흥원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국제학술대회」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색 단풍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가을날, 불의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의로운 함성이 잠든 이곳 전라남도에서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광주·전남 항일활동"을 주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130여 년 전, 이 땅의 민중들은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동학의 가르침 아래, 불의한 세상과 외세의 침탈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그 정신은 단순한 농민의 저항을 넘어 민족 자주와 평등, 나아가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항일운동으로의 확산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이곳 전라남도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중심지이자 항일의 불길이 타올랐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오늘의 자리에서 다시 되새기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이어가는 소중한 인문학적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그 깊이를 더해줄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조선 민중의 항일정신」이라는 기조강연은 동학농민혁명을 관통하는 거시적인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국내외 연구자 여러분께서 각자의 전문성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역사적 해석과 의미를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논의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오늘의 민주와 평화, 그리고 인류 보편의 가치로 확장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김영록(전라남도지사)

깊어가는 가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온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학술대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한국학호남진흥원 홍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조강연을 해주실 도올 김용옥 선생님을 비롯해 알찬 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학술대회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정신 아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위대한 민중혁명이었습니다. 평등과 자주의 가치를 내세우며 근대 민족운동의 서막을 연 이 역사적 사건은 오늘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더욱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 방안을 구체화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전라남도 또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과 선양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전남동학농민혁명사 발간,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에 힘써왔고, 올해는 흩어진 유적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과 정비를 통해 의향 전남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이하윤(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기념사업회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뜻 깊은 학술대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학 연구자, 시민, 후학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와 한국학호남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우리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기념사업회가 후원하는 오늘의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국제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와 광주·전남 항일활동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사상적·민족사적 의미를 밝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님, 그리고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헌신해 오신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기조강연을 맡아 주신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선생님께서 강연하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조선민중의 항일정신"은, 우리 민족사 속에서 동학이 지닌 저항과 해원의 정신을 새롭게 일깨우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에 참여해 주신 위신광 교수님, 김명재 사무국장님, 박해현 교수님, 그리고 박용규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귀한 기회를 힘써주신 전라남도 도의회 신민호위원장님께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지 19세기 조선의 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민중이 스스로 일어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뗀 근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1894년 가을의 제2차 봉기,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서의 항일투쟁은 조선 민중이 외세의 침탈과 봉건의 압제 모두에 맞서 싸운 자주독립운동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동학군은 패배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그 정신은 1919년의 3·1운동으로, 그리고 이후의 수많은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2차 봉기를 새롭게 조명하는 일은 역사를 되살리는 학문적 과업일 뿐 아니라, 항일전쟁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정명(正名)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1894년의 1차 봉기에 비해 2차 봉기와 그 항일활동은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차 봉기가 일제의 군사개입에 대한 직접적 항쟁이었으며, 이는 명백한 항일전쟁의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그 정신과 희생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참여자들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의 길을 열어드리는 일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후손된 우리의 도리입니다. 오늘의 국제학술대회가 바로 그 역사 정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모든 발표자와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연구와 헌신이 이 땅의 역사 정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조강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조선민중의 항일정신

-영호도회소의 활동에 대한 고찰과 함께-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학교 교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조선민중의 항일정신
-영호도회소의 활동에 대한 고찰과 함께-

철학자 도올 김용옥

1. 나는 2005년 8월에 전 국민에게 방영된 대작, EBS 해방60주년특집 다큐멘타리, 『도올이 본 한국독립운동사 — 10부작』을 동학의 형성으로부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구한말의 의병활동과 20세기 독립운동을 동학과의 연속적 연계 속에서 파악하는 시각이 미미했다. 당시 나의 신념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 민주공화국의 법통으로서의 동학정신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2. 나는 동학의 정신을 서양의 역사학이 주장하는 바 근대성(Modernity)의 출발이나 근원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나는 조선의 역사에 "근대"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양의 근대가 말하는 바 자유와 평등, 프랑스의 인권선언이 규정하는 언론·출판 및 신앙의 자유와 법적 평등, 과세의 평등, 주권재민의 원리, 압제에 대한 저항권 등이 보장된다고 해서 근대적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개념들은 실현과정에 있어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친다. 이상은 이상일 뿐, 어떠한 역사의 필연도 강요하지 못한다.

3. 동학은 서학에 대비되는 동의 학이 아니다. 수운은 경주 부근의 유생들에게 "서학"의 아류로 휘몰리게 되자, 그러한 음해를 벗어나기 위해 "서학"에 대한 변명으로서 "동학"이라는 명칭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의 깨달음의 본질을 형언하는 말은 "무극대도無極大道"였다. 「도수사道修詞」 「교훈가敎訓歌」 「용담가龍潭歌」 「권학가勸學歌」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에 그 용례가 나온다. "무극한 이 내 도道"라는 표현도 있고, "무극지대도無極之大道," "무극지리無極之理," "무극지운無極之運"과 같은 표현도 있다. 이 사상을 표현하는 실천론적 명제는 "개벽開闢"이다.

4. 여기 "무극無極"이라는 말은 "극極이 없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국한성, 제한성, 시공의 제약이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계사전」(上4)에서 말한 바 "神无方," "易无體"의 다른 표현이다. "무방无方, 무체无體"라는 말은 "실체성(Substantiality)이 없다"는 말이다. 궁극적 진리는 실체성이 없다.

5. 수운은 외세의 침범, 침략과 함께 밀어닥치는 외래사상의 성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외세의 물리적 침략의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였다. 그리고 정신적 왜곡으로 민중의 심성을 파괴하는 것은 기독교(=천주교리)였다. 수운의 일차적 관심을 "보국안민輔國安民"(「권학가」, 「포덕문布德文」)이었고, 보국안민의 두 역사役事는 일본의 침략을 막는 것과 기독교(=서양정신사)에 의한 민족혼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6. "개 같은 왜적놈"이라는 표현은 「안심가」에 3번 나온다.

※ 개 같은 왜적倭賊놈아
너희 신명身命 돌아보라
너희 역시 하륙下陸해서
무슨 은덕恩德 있었던고……
———————————
개 같은 왜적 놈이
전세 임진壬辰 왔다가서……
———————————
개 같은 왜적놈을
하늘님께 조화造化받아
일야一夜에 멸滅하고서……

7. 동학의 역사적 활약을 국가적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규정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 "농민"은 국민의 2~3%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세대가 이 혁명을 소수 특수한 그룹의 혁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역사와 더불어 삶의 공간(*Lebensraum*)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혁명은 영원히 삶의 공간의 현재 속에 살아있어야 한다.

8. 프랑스혁명French Revolution(1789. 5. 5.~1799. 11. 9.)에 상퀼로트(Sans-culotte: 퀼로트를 입지 않은 사람)가 주축이 되었다고 해서 프랑스혁명을 "프랑스상퀼로트혁명"이라 말하지 않는다. 동학을 일으킨 "농민"은 특수계층이라기보다는 특수 관리들이나 사악한 양반 소수를 제외한 국민 전체를 가리킨다. 아무리 지배계급이라 할지라도 극도에 달한 부패의 실상은 알고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부적절한 이름이다. "농민"을 빼고 "동학혁명"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9. 동학혁명의 핵심은 인간사회 내의 현실적 평등구조를 성취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과 하느님(=God)과의 관계를 명료히 규정하는 데 있다. 즉 인간과 하느님의 평등, 인간과 하느님의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초월하는 모든 압제적 권력을 거부하는 것이다. 모든 초자연적 사태(불연不然)는 자연적 인과(기연其然) 속으로 용해된다.

10. 미국의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1776. 7. 4. 제2차 대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a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들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특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들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것, —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사람들 사이에 수립되며, 그 정당한 권력은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는 것, —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파괴적이 될 때,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권력을 조직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11. 이 독립선언서에는 인디언, 흑인, 노예, 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는 말에서 토머스 제퍼슨은 남성중심적인 “me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영국의 폭력, 폭정, 압제만 언급하고 주체측의 폭력, 폭정, 압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간의 평등이 창조주에 의하여 보장받는다는 것은 픽션이다. 최수운은 인간이 인간을 “하늘님”으로 인식할 때만이 인간의 평등이 보장된다고 보았다. 하느님에 대한 의타적 신앙은 인간을 또다시 왕정에 복속시키는 것이다. 미국독립선언서에 숨어있는 진실은 식민지의 신흥세력들에게 영국을 격퇴하기 위한 지지를 요구하기 위한 문서라는 것이다. 신흥세력들은 재산과 권력에 관한 기존의 체제가 심하게 붕괴되지 않기를 바랐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기존의 체제에 속해있었다. 그들의 3분의 2 이상이 식민지관리로서 영국을 위해 봉사했던 사람들이었다.

12. 미국민주주의의 장엄한 듯이 보이는 역사가 결국 대통령 트럼프(Donald Trump, 47대 대통령)의 리더십의 행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디언 학살, 흑인 노예에 대한 비인간적 학정, 제국주의적 팽창, 월남전의 다양한 양상에서 보여준 미국정치의 우매함과 비도덕성, 자본주의 시스템의 폭력 등등을 고려할 때 서구적 민주주의는 세계사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으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한 듯이 보인다.

13. 자유나 평등은 이념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이념은 항상 그 경향성을 주창하는 사람의 이권과 관계되어 있다. 자유, 평등은 고귀한 가치가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은 제3의 이상이 비실체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자유도 평등도 무방无方이요 무체无體다. 그것은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삶 속에 내재하는 도덕이다. 서양의 혁명이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도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덕은 도道요, 덕德이다. 도는 삶의 방식(Way of Life)이요, 덕은 시간 속에서 쌓아 나아가는 것이다(德, 畜之).

14. 동학은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동학의 발원지는 전라도가 아닌 경상도다. 동학을 키운 것은 포항에서 울진에 이르는 동해안의 풍요로운 물자였다. 영해부의 신향에서 동학의 하부구조가 온양되었다(영해寧海의 박하선朴夏善, 영덕盈德 거천리 사람 강수姜洙가 그 대표적 인물).

15. 이필제와 해월이 주도한 영해혁명을 통하여 동학운동은 프로펫셔널한 정치집단으로 진화한다.

16. 영해혁명의 피해를 비켜 충청북도·강원도에 이르렀고 1880년 6월 인제 갑둔리에서 수운의 수고手稿, 『동경대전』을 간행刊行한다(목활자본, 100부 정도).

17. 그리고 다음해 1881년 6월 수운의 한글가사집 『용담유사』가 충청도 단양군 남면 샘골 여규덕呂圭德의 집에서 출간된다. 여규덕은 몽양夢陽 여운형呂運亨의 작은할아버지이다. 여운형은 동학의 경전간행을 완수케 한 대갓집에서 태어났다. 1883년 2월 천안목천접주 김은경金殷卿의 집에서 온전한 『동경대전』 간행. 그리고 5월에 목천에 이어서 경주판 『동경대전』을 간행하여 해월은 "고비원주高飛遠走"의 사명을 완수한다. 동학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민중 속으로 광포廣布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1880년대에 전라도로 포덕되었다.

18.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는 전라도 순천일대에 자연스럽게 설치·형성된 동학혁명군의 결집조직활동인데, 매우 특별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1894년 5월 7일~8일에 걸쳐 전주화약이 체결되고, 최초의 민중꼼뮨이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김개남과 김인배를 따르는 혁명군은 정부의 약속만을 믿고 해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되어 그 결속력을 유지시켰다.

19. 김개남金開南(1853~1894. 12. 3)은 동학의 리더 중에서도 사태를 파악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과단성이 있었다. 김개남은 본관이 도강道康이며 자가 기선箕先, 기범箕範이며 태인(현재 정읍시 태인면) 태생이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하였으며 신동 소리를 들었다 했다. 김개남은 지식인이다. 그런데 김개남에 대한 인상이 천민으로서 전라좌도 두령이 된 남계천南啓天(뚜렷한 족적이 없다)과 혼동되고, 얼굴이 김개남의 실상과 관계 없는 사진으로 잘못 지목되어(나무위키 김개남條 참조) 왜곡된 측면이 있다. 김개남의 휘하에는 보통 "수천, 수만"의 동학혁명군이 따랐다고 하니, 그의 카리스마를 짐작할 수 있다. 김개남은 전주에서 남원으로 내려와 남원성 관아에 전라좌도 대도소大都所를 설치했다. 전라우도 대도소(전주 삼례)를 장악한 전봉준과 쌍벽을 이룬다.

20. 김인배金仁培(1870. 1894. 12. 7)는 금구 사람으로 금구대접주 김덕명의 휘하의 장수이다. 백산기포에 참여하여 전주성에 입성할 때까지 전술·전략을 짠 탁월한 브레인이다. 김인배는 당시 25세의 청년으로서 미남형의 훤출한 장군이었다. 남쪽에 항일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김개남을 따라 남하하여 1894년 6월 28일, 순천부 관아에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영호도회소를 설치하여 순천-광양-고흥-낙안-보성-하동-진주-곤양-사천-남해를 관할하였다.

21. 김개남-김인배의 활동의 특출난 면모는 북쪽에서 우금치를 거쳐 서울로 향해가는 항일재봉기의 무장투쟁흐름과 별도로, 부산을 공격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산이야말로 일본의 조선대륙침략의 본거지였으며, 일본영사관과 해군까지 보유한 막강한 병참기지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전쟁의 근원을 쳐야한다는 진일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22. 김개남-김인배의 활동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와 남도의 인식체계에서 보면 안된다. 전라도는 전라도이었을 뿐이며 좌도와 우도의 구분만 있었다. 이들의 활동은 전라좌도의 상하연계상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호남과 영남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김인배는 9월 1일 섬진강을 넘어 하동으로 갔다. 줄리어스 시이저가 루비콘강을 건넌 사건에 비유할 수 있을까? 시이저는 성공했으나 김인배는 진주성까지 장악했으나 끝내 일군의 대규모 병력의 화력에 무릎꿇고 만다.

23. 20세기 중국의 대사가이며 북경대학 총장대리, 대만대학 총장을 염임한 후우쓰니엔傅斯年(1896~1950)이 3·1독립만세운동이 단순한 운동이 아닌 혁명이라는 설說을 주창하며 쓴 논문이 있다.

1. 무기를 갖지 않은 혁명革命이다.
2. 불가능한 것을 알고 한 혁명革命이다.

24. 조선말기의 항일투쟁은 슬프다.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이 있었다. 이순신은 단지 레토릭이나 전술전략으로써 전쟁을 이끌지 않았다. 그는 일본의 병력을 능가하는 판옥선과 화포를 준비해놓고 있었다. 그의 함대는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우금치에서 스러져간 영령들, 석대뜰에서 최후를 맞이한 이름없는 혁명투사들, 영호도회소를 끝까지 지킨 영웅들, 이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전술, 전략이 필요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25. 트럼프의 광포狂暴한 언행을 바라보며 우리민족의 사유는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가운 일이다. 3500억 불의 현금으로 생짜로 선불up front로 내놓으라는 협박 앞에서 대통령은 도장을 찍지 않았고,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국민들은 84.8%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대구·경북에서도 84.0%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영·호남이 동일한 주제를 놓고 이렇게 의견의 합치에 도달하는 것은 유례가 거의 없다. 이것이 우리 조선민족의 본연本然이다.

26. 몽양 여운형은 1945년 해방직후 「신조선건설의 태도」라는 글 속에서 이미 자주국방, 자주외교를 외치고 있었다: “외국군대를 만났으니 ‘How do you do?’라고 인사할 것이고, 둘째는 ‘Thank you!’라고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것이고, 셋째로는 ‘Goodbye~’가 있을 뿐이다.”

27. 나는 인류사를 대변하여 말한다: “Hello, Trump! Goodbye~”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광주전남항일활동 중심으로

발표문

청일전쟁 초기 일본군의 작전에 미친 동학농민군의 영향
魏晨光(산동대학교)

동학농민혁명과 영호도회소의 농민군활동
김명재(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기념사업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항일 의병
박해현(초당대학교)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한국독립운동의 시작
박용규(고려대학교)

청일전쟁 초기 일본군의 작전에 미친 동학농민군의 영향

魏晨光(중국 산동대 역사학부)

• 목차 •

Ⅰ. 머리말
Ⅱ. 일본군의 '중로' 병참선 선정과 동학농민군의 영향
Ⅲ. '중로' 병참선 구축과 노선 변경
Ⅳ. 조선인의 눈에 비친 '중로' 병참선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청일전쟁 초기 일본군의 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제해권의 장악이었다. 청국과 달리 대규모 야전군을 해상으로 수송해야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일본으로서는 제해권의 유무는 거의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일본이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지점은 인천, 부산, 원산 세 곳이 있었지만, 1894년 8월 1일 선전포고 후 일본은 여전히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지 못하여 부산과 원산에만 육군을 상륙시킬 수 있었다. 대본영은 부산에서 한성 간 경부선을 육군의 주요 이동노선으로 잡았는데 그중에서도 '중로'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제5사단은 경성으로 집결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9월 17일 황해해전의 승리로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

두 번째는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청일전쟁에 관련된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심지어 일본군의 작전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온전한 청일전쟁상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동학농민전쟁 연구와 청일전쟁 연구를 포괄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동일한 사건과 사실을 기술한 일본 측 사료와 한국 측 사료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Ⅱ. 일본군의 '중로' 병참선 선정과 동학농민군의 영향

대본영은 제5사단(혼성제9여단 제외)을 파병하기 전에 한반도의 지리정보를 놀라울 정도로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 정보에 따르면 부산에서 한성까지 東路, 中路, 西路 세 가지 노선이 있었다. '중로'는 부산에서 동래, 양산(梁山), 밀양, 대구, 선산(善山), 상주, 대봉(臺封)을 거쳐 조령을 넘어 충주, 음죽(陰竹), 광주와 한성에 이르는 노선이다. '동로'는 부산 동래에서 출발하여 울산, 경주, 영천(永川), 의흥(義興), 안동, 영

천(榮川)을 거쳐 죽령(竹嶺)을 넘어 단양과 충주에 이르러 ‘중로’와 잠시 합친 후에 릉암(陵岩)에서 다시 ‘중로’와 갈라져서 한강을 따라 한성에 이르는 길이다. ‘서로’는 부산에서 서쪽으로 낙동강을 건너 김해(金海), 칠원(漆原), 영산(靈山), 현풍(玄風), 성주(星州), 금산(金山)을 거쳐 추풍령을 넘어 영동(永洞), 옥천(沃川)에서 내륙으로 방향을 틀어 청주, 죽산(竹山), 양지(陽智), 용인을 거쳐 한성에 도착한다.[1)]

1894년 7월 5일 대본영의 병참총감을 겸하고 있던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참모차장은 병참총감부(兵站總監部) 소속의 후지이 시게타(藤井茂太) 포병 소좌에게 부산-한성 간의 병참선을 정찰하라고 지시했다. 후지이는 육군대학교에서 독일 교관 멕켈로부터 직접 병참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독일 유학도 경험한 엘리트 장교였다. 그는 육군대학교 교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6월에 가와카미 참모차장의 명령으로 대본영 병참총감부에 배속되어 관련 업무에 종사했는데 경부 병참선 정찰도 그의 제안이었다.[2)]

가와카미 병참총감은 조사해야 할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매우 상세하게 지시했다.

1. 부산과 경성을 연결하는 병참선을 정찰할 것. 단〔정찰할〕병참선은 ‘중로’로 한다. 그렇지만 정찰의 결과에 따라 ‘중로’를 사용하기 매우 곤란할 경우 대구에서 성주, 청주를 거치는 ‘서로’를 정찰하고 그중 하나를 선정한다.
2. 〔도로는〕경편 짐수레(軽便荷車)가 사용가능할 정도까지 수리되어야 하는데 도로의 수리는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대해 조사한다. 도로의 상태가 짐수레의 통행이 어려우면 각 구간에는 다수의 인부를 준비하여 운반하는 것도 괜찮다. 인부(工夫) 및 재료를 현지에서 징집할 수 있는지. 단 징집한 후에 각 구간의〔수리 시간은〕얼마나 소요되는지. 각 교량 가설 혹은 수리에 필요한 인부와 재료의 수량 및 그 유무. 만약 이것을 다른 곳으로 운반할 때 필요한 수단. 도로 중 짐을 운반하기 위해 경편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와 그 길이(里程).
3. 병참지와 창고, 혹은 임시 창고를 설치할 위치의 선정.
4. 운반에 필요한 인부와 재료의 조사.
5. 병참 업무의 수리(水利)를 이용할 수 있는지의 조사.
6. 병참선 및 연도의 자원 조사.
7. 지시한 ‘중로’를 정찰하고 이 노선이 병참선의 목적에 적합할 경우, 경성을 통해 인천에서 배편으로 귀항한다. 단, 충주에 이르는 이 도로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대신 청주와 성주를 지나는 ‘서로’를 정찰하고, 대구로 돌아와서 귀환한다.
8. 제2전신가설지대에서 사관, 하사, 병졸 각 1명을 보조로 제공한다. 단, 사관 이하의 분견에 대해서는 지대사령관과 협의해야 한다.
9. 통역관 약간 명을 고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부속자(附屬者)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지불한다.[3)]

이처럼 가와카미 훈령은 경부 병참선의 선정에 있었고 그중에서도 ‘중로’의 사용

1) 參謀本部 編纂, 1904,『明治二十七八年日清戦史』(第1巻), 東京印刷, 16~17쪽.
2) 秦郁彦 編, 2005,『日本陸海軍総合事典』(第2版), 東京大学出版会, 137쪽; 藤井茂太 著, 1936,『両戦役回顧談』, 偕行社, 178~181쪽, 194~195쪽.
3) 이 중에서 1~6번은「雜第一四〇号其一」훈령의 내용이고 7~10번은「雜第一四〇号其二」훈령의 내용이었다.「兵站総監より藤井少佐宛訓令」JACAR Ref.C06061941900、明治27年6月12日~7月22日「玉手箱 第4号」;「7月5日兵站総監より藤井少佐宛訓令」JACAR Ref.C06061942100、明治27年6月12日~7月22日「玉手箱第４号」;「７月」JACAR Ref.C06062203800、明治27年6月「陣中日誌７兵站総監部27自6、5至9、3」, 1894년 7월 5일 참조.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미 이때 가와카미는 세 개의 노선 중에 '중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로'의 가장 큰 관건은 문경새재를 무사히 넘을 수 있는지였다. 이에 따라 '중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성주와 청주로 이어지는 '서로'를 선택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그리고 문경새재를 넘어 정찰을 마치면 인천을 통해 귀국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가와카미는 굳이 '서로'를 정찰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동이 용이하고 이미 전신선도 가설한 바 있는 '서로'를 외면하고 '중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이유는 후지이 소좌의 회고록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후지이는 훗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대한 회고록에서 「한반도 부산-경성 간의 정찰」이라는 글을 남겼다. 후지이는 당시 일본 함대는 "절대로 청국 함대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 없고 양국의 해전 또한 언제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병력을 인천에 상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추가병력을 상륙시킬 곳은 원산과 부산밖에 없었다. 게다가 "만약 아산을 공격하는 일본군이 불리"해지거나 일본 해군이 "불행한 상황"에 처할 경우 추가 병력을 한반도로 증파하는 방법 즉 일본 해군이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 육군은 안전한 상륙지와 한반도 내의 육로 이동노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어서 '중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여러 조건에 있어서 부산은 병참주지(兵站主地)로 가장 적합하다. 부산에서 경성에 이르는 세 노선 중에서 '동로'는 거리가 멀고 인구도 적고 지역 또한 빈곤할 뿐만 아니라 도로의 여건도 좋지 않다. '서로'는 거리가 약 백 십 리로서 '동로'에 비해 인구가 많고 지역도 풍요롭고 도로도 양호하지만, 부근에 동학당이 봉기하고 있다. 또 이 도로는 아산과 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중로'는 거리가 약 백 이십 리이지만 비교적 도로가 좋고 낙동강의 수운과 하담(河潭)까지의 한강 수운을 이용할 수 있고 부산에서 대구까지는 조선의 전신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부산 한성 간 전신선은 대구에서 '서로'를 따라 한성에 이르는 전신선이 유일했다).

후지이 소좌가 밝혔듯이 '서로'가 거리가 짧고 도로 상태가 양호하며 연도의 물산도 풍부하지만, 일본군이 진군 루트로 선정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동학농민군의 존재였다. 실제로 7월 초에 동학농민군의 제1차 봉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은 여전히 일본 대본영의 작전 수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본영의 훈령을 받은 후지이 소좌는 7월 6일 도쿄 신바시(新橋)역에서 기차로 히로시마에 도착한 후 8일 우지나항을 출항하여 이틀 뒤인 10일에 부산에 도착했다.[4] 후지이 일행 12명 중 무려 7명이 통역 담당이었는데[5], 당시 부산에서 대구까지만 전신선이 가설되어 있어서 대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대본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가능한 요원을 부산 또는 한성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후지이는 가와카미로부터 지시받은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수시로 보고했다. 예를 들어, 18일 대구에 도착했을 때는 동래, 귀포, 김해, 창원, 마산포, 옹천, 명호원 등

4) 「7月6日寺内大佐発山根少佐宛」 JACAR Ref.C06060697000、明治27年自7月1日至8月24日「発電綴(二)」
5) 藤井茂太, 1936, 앞의 책, 201쪽 참조.

지방 도로의 상태와 짐수레 통행의 여부를 보고했고 부산포 거류지의 인구와 가구수 등을 보고한 기록도 남아 있다.[6] 7월 25일 문경에 도착하여 문경새재를 정찰하였는데 의외로 후지이는 문경새재의 산길이 험하지만 병참선으로 개조할 수 있다고 보고 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다. 그 후 후지이는 육로로 이천을 거쳐 8월 1일에 한성에 도착했다.

이 시기 후지이 소좌는 아산의 청군과 일본 혼성여단의 대치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동학농민군을 평하고 있다.

> 이번 정찰은 매우 위험하다. 과연 (내가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지, 어쩌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서로'에 가까운 아산의 청군과 우리의 여단이 전투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만약 청군이 패배하면 그 패잔병은 내가 정찰하려는 '중로'의 충주를 거쳐 북진해야만 평양의 청군과 합류할 수 있다. 그런데 충주와 아산은 불과 18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아산의 남쪽에는 여전히 동학당의 세력이 매우 창궐하다.

여기서 후지이는 청군이 있는 아산과 '서로'의 충주가 근접해 있어 자신의 정찰 임무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동학농민군의 활발한 움직임 때문에 '서로'의 선택이 불가함을 지적하고 있다.

1894년 7월 27일, 개전 5일 전 대본영이 제5사단의 출정을 명하는 자리에서 가와카미 병참총감은 후지이 소좌의 보고서와 기타 정보를 종합하여 사단장 노즈 중장과 후루카와 노부요시(古川宣誉) 병참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했다.[7]

> 1. 인천-부산 간의 항로가 폐쇄될 경우 육로로 부산에서 대구, 상주, 충주를 경유하는 '중로'를 병참선으로 채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도로는 매우 험악해서 미리 수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병참선으로 쓸 수 없어서 수리에 착수해야 한다. 전에 파견한 정찰관〔후지이 시게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연도에서 군수물자 특히 쌀을 수집하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미리 쌀을 수송하고 각 곳에 예비창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설하고 있는 전신선을 보호하지 않으면 파괴될 우려가 있으니 이를 호위해야 한다.
>
> 2.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병참감 후루카와 대좌에게 다음과 같이 인원을 배속시키고 부산으로 파견한다. 헌병·군의부(軍医部)·우편부를 제외한 병참감부와 3개의 병참사령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 공병 제6대대 제1중대.
>
> 3. 병참감 후루카와 공병 대좌는 〔7월〕 31일 오후 5시 이즈미호(和泉丸)로 우지나항(宇品港)을 출항하고, 모지항(門司港)에서 공병 제6대대 제1중대를 승선시킨다. 단, 이 중대의 출발 명령과 모지항에서의 승선 명령은 제6사단장을 통해 하달한다.
>
> 4. 후루카와 병참감은 도로 수리에 대해서 병참총감의 지시를 따르고, 군수물자의 수집, 수송과 창고의 설치에 대해서는 야전감독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
> 5. 도로 수리에 필요한 인부(工夫)는 되도록 현지에서 구한다. (후략)
>
> 6. 파견에 필요한 선박에 관해서는 우지나의 야마네 소좌〔야마네 타케스케(山根武亮), 우지나 운수통신지부장(運輸通信支部長)〕와 협의한다.

---

6) 「7月」 JACAR Ref.C06062203800、明治27年6月「陣中日誌7兵站総監部27自6、5至9、3」, 1894년 7월 15일 및 17일 참조.

7) 위의 사료, 1894년 7월 27일; 「7月」 JACAR Ref.C06062203800、明治27年6月「陣中日誌7兵站総監部27自6、5至9、3」, 1894년 7월 28일 참조.

위의 명령에서 우선 부산을 메인 상륙지로 삼았고 경부 간의 육로 병참선은 ‘중로’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상수송을 이용하여 육군을 인천에 상륙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일본 해군이 서해의 제해권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본영은 해상수송의 위험을 무릅쓰는 도박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대본영은 거리가 멀고 길도 험했지만 ‘중로’를 병참선으로 선택하는 플랜B를 들고 나왔다.

두 번째, ‘중로’를 병참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도로 수리와 안전한 통신수단의 확보에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육로로 대규모의 군대가 이동할 때 도로의 상태와 전신선의 가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다. 아울러 당시 지형에 따라 사용되고 있던 좁은 주요 도로들이 군사용으로 적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8] 실제로 노즈 사단장도 “도로의 대부분은 험악한 돌길이었고 도로라고 하기 어렵고 단지 논두렁길에 지나지 않는 구간이 많아 매우 열악했다” 고 평했다.[9]

세 번째, 대본영이 험로인 ‘중로’를 제5사단의 병참선으로 선택하면서 이전의 ‘서로’에 설치했던 전신선을 ‘중로’로 옮긴 이유는 전적으로 동학농민군의 존재 때문이었다. ‘서로’의 전신선이 동학농민 세력들에 의해 빈번하게 절단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대본영의 작전 지휘에 있어서 현지의 전신선 가설은 군대 이동 못지않게 필수적이다. 참고로 ‘서로’의 전신선이 사용 불능이 되자 일본군은 두 척의 통신선으로 부산과 인천 사이를 오가게 하며 본국과 연락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반면에, ‘중로’를 따라 전신선이 가설되는 8월 중순에는 도쿄에서 한성까지의 소요시간이 대략 6~8시간으로 대본영은 대부분의 명령들을 당일에 처리할 수 있었다.

Ⅲ. ‘중로’ 병참선 구축과 노선 변경

대본영은 제5사단을 부산에 상륙시키면서 ‘중로’ 병참선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일부 병력을 원산으로 보냈지만 거기에는 본격적인 병참 지원이 따라붙지 않는다. 7월 31일 주력부대의 출항에 앞서 후루카와 사단 병참감은 병참사령부 3개, 공병 1개 중대를 이끌고 우지나항을 출항했다.[10] 8월 2일 부산에 상륙한 후루카와 병참감은 병참주지(兵站主地)를 설치한 후에 두 명의 병참사령관을 대구와 상주로 파견하여 그곳에 병참사령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병 1개 대대 천 명이 동원되었고 우마 70마리와 인부 642명도 따라갔다.[11]물론 여기에는 도로를 수리하는 전문적인 공병도 포함되어 있었다. 상주로 파견된 이마바시(今橋) 병참사령관은 12일 낙동진에 병참사령부를 설치하여 낙동강의 수운을 병참선으로 활용하고자 했다.[12]

8월 6일 오전 9시 노즈 제5사단장이 인솔하는 제3차 수송부대들이 속속 부산에 입항했다.[13] 그러나 노즈 사단장은 ‘중로’가 길이 험하고 도중에 인마의 모집도 쉽지 않

8) 朴慶龍, 1995,『開化期 漢城府 研究』, 一志社, 166쪽.
9)「申報、第5師団長野津中将から参謀総長宛、8月24日」JACAR Ref.C06061762600、明治27年自6月至9月「混成第9旅団 第5師団 報告」.
10) 参謀本部 編纂, 1907,『明治二十七八年日清戦史』(第8巻), 3~4쪽.
11)「8月」JACAR Ref.C06062203900、明治27年6月「陣中日誌7兵站総監部27自6、5至9、3」.
12) 参謀本部, 1907, 앞의 책, 4쪽; 陸軍省 編纂, 2005,『日清戦争統計集: 明治二十七・八年戦役統計』(上巻1), 509~513쪽.

다는 보고를 받자 오후 1시에 보병 1개 대대만 '중로'로 이동하고 나머지 병력은 한성과의 거리가 짧은 원산으로 보내겠다는 의견서를 대본영에 보냈다.[14] 이를 위해 노즈 사단장은 급히 병력의 상륙을 중지시키고 7일 보병 3개 중대만 '중로'를 따라 행군하고 이미 상륙한 탄약대대와 보병 1개 중대는 대기하고 아직 상륙하지 않은 나머지 병력은 모두 원산으로 보내고자 했다. 하지만 대본영은 노즈 사단장의 결정을 무시하고 일부 전투부대만 원산으로 수송하고 사단장은 한성으로 급행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수송선으로 부산에서 원산까지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고 한성까지의 거리도 짧았지만, 대본영은 원산의 비중을 크게 보지 않았다. 실제로 원산에 상륙한 병력을 위해 병참사령부가 따라갔지만 원산에서의 상륙 업무가 종료되자 곧바로 부산으로 복귀했다.[15] 이에 비해 '중로' 병참선에 대한 지원은 파격적이었다. 노즈가 출발하자 당일 부산의 무로타 요시아야(室田義文) 총영사가 오토리 일본공사를 통해 조선정부에게 '중로'를 따라 행군하는 일본군대를 위해 인부와 마필의 모집, 조선 동전(한전)의 환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16], 이에 조선정부도 김윤식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를 통해 연도의 관리들에게 통지했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즈 사단장 일행은 출발 첫날부터 짐수레와 우마의 통행이 곤란한 지형과 한낮의 행군을 어렵게 하는 무더위에 직면하자, 다음날(9일) 즉시 일행의 배낭을 수로를 통해 부산으로 돌려보내고 후루카와 병참감에게 후발 부대의 짐도 줄이라고 지시했다.[18] 그 후에도 노즈의 고난의 행군은 계속되어 문경새재에서는 경사가 심한 암석 사이를 어렵게 빠져나오는 중에 말이 쓰러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19] 17일 남한강 상류의 가흥에 도착한 노즈 일행은 모두 배에 승선하여 19일 밤에 광진 나루에 도착했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33시간이었다.[20] 이것은 같은 거리를 2, 3일 걸린 조선 시대의 조운선에 비교해도 빠른 속도였다. 당시 남한강에서 사용된 선박은 크기에 따라 130석에서 300석까지 선적할 수 있었는데 노즈 일행도 이들 배를 이용했다고 보인다.[21]

---

13) 「申報、第５師団長野津中将から参謀総長宛、8月24日」 JACAR Ref.C06061762600、明治27年自6月至9月「混成第9旅団第5師団報告」; 「意見書9月30日」 JACAR Ref.C06061765800、明治27年自6月至9月「混成第9旅団 第5師団 報告」.

14) 第五師団長野津道貫中将, 『明治二十七八年陣中日記』(1894.6.4.~1895.5.15),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野津道貫関係文書』 28-1·28-2(이하 『野津日記』로 표기).

15) 「8月」 JACAR Ref.C06062203900、明治27年6月 「陣中日誌7兵站総監部27自6、5至9、3」; 陸軍省, 2005, 앞의 책(上卷1), 509~513쪽.

16)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앞의 책, 고종 31년 7월 7일(1894.8.7), 釜山發上京日軍에 對한 沿道各地方官의 協調依賴(문서번호 2964).

17)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앞의 책, 고종 31년 7월 8일(1894.8.8), 上京日軍에 對한 協調의 准飭回答(문서번호 2967).

18) 『野津日記』, 1894년 8월 8일자.

19) 위의 사료.

20) 「申報、第5師団長野津中将から参謀総長宛、8月24日」 JACAR Ref.C06061762600、明治27年自6月至9月「混成第9旅団 第5師団 報告」.

21) 『세종실록』 권113 28년 9월 신사조; 강선(江船)의 종류와 크기는 『경국대전』(工典 舟車, 造營尺 1尺=31.195cm)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선		중선		소선	
측정법	길이	넓이	길이	넓이	길이	넓이
조영척	50척	10척 3촌	46척	9척	41척	8척
미터법	16m	3.3m	14.7m	2.9m	13m	2.6m

여기서 8일 새벽 참모 부관과 기병 1개 소대를 이끌고 부산을 떠난 노즈 사단장 일행의 행군 궤적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1894년 8월 제5사단장 일행의 부산-한성 행군 궤적

날짜		출발		도착		비고
제1일	0808	4:50	부산	14:20	양산	★부산 병참사령부 이미 설치됨(8월 2일). 도중 고개가 있어 짐수레와 마필 통행 곤란.
제2일	0809	4:50	양산	18:30	밀양	병사의 배낭들을 배로 부산으로 회송.
제3일	0810	5:30	밀양	14:05	청도	
제4일	0811	5:00	청도	16:30	대구	★대구 병참사령부 이미 설치됨(8월 9일).
제5일	0812	대구 체재				도중에 팔조령(八助嶺) 넘어갔다 . 대구에서 한전(韓錢) 교환.
제6일	0813	5:45	대구	19:20	인동	
제7일	0814	4:30	인동	19:40	상주	낙동에서 제1전신가설지대장 요시미 소좌를 만나 전신선의 가설 상황과 조선정부가 연도의 조선 관리에게 일본군대에 편리를 제공하라는 공문을 수령.
제8일	0815	5:00	상주	19:05	문경	
제9일	0816	4:35	문경	19:00	충주	문경새재 넘어갔는데 마필 쓰러지는 경우 다발.
제10일	0817	5:00	충주	10:00	가흥	
		13:00	가흥 (수로 이동)			인마 모두 승선. 배 한 척에 3필, 기병과 마부도 함께 탑승. 한 척의 배로 이틀분의 양말을 준비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함.
제11일	0818	수로 이동		21:30	광진	
제12일	0819	광진 상륙		9:40	한성	

* 노즈 제5사단장이 참모총장에게 올린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작성.[22]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노즈 사단장 일행은 부산에서 충주까지 육로를 이용했고 보통 새벽에 출발하여 해가 지기 전에 정박지에 도착한 후 다음 날 새벽 다시 출발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대구에서 "고용한 조선인 인부들의 도망"과 "한전과 식량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23] 그리고 문경새재를 넘어서 충주 근처의 가흥부터는 한강의 수운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광진 나루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제5사단장 일행은 육로와 수로를 이용하여 12일 후인 19일에 한성에 도착했다.

제5사단장 일행이 이용한 '중로'는 여전히 대부분의 길이 "황폐했기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았다.[24] 참고로 대마도 통사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 1755-1832)의 『상서기문(象胥記聞)』에 따르면, 보통 사람이 하루에 100리를 걷는다고 보았을 때 동래에서 한성까지 총 940리의 길은 대략 12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25] 당시의 기록과 비교해 보았을 때 노즈 사단장 일행의 행군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할 수는 없었다. 노즈 사단장도 이러한 사실을 의식한 듯 한성에 도착한 후에 참모총장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도로의 험악함, 한전의 결핍, 인부와 마필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군대의 행진"이 매우 곤란했다고 변명하고 있다.[26]

---

22) 「申報、第5師団長野津中将から参謀総長宛、8月24日」 JACAR Ref.C06061762600、明治27年自6月至9月「混成第9旅団 第5師団 報告」;「意見書 9月30日」JACAR Ref.C06061765800、明治27年自6月至9月「混成第9旅団 第5師団 報告」.

23) 『野津日記』, 1894년 8월 11일·13일자.

24) 「8月」JACAR Ref.C06062203900、明治27年6月「陣中日誌7兵站総監部27自6、5至9、3」.

25) 小田幾五郎 저, 쿠리타 에이지(栗田英二) 역, 2005, 『상서기문』, 이회문화사, 44~45쪽.

한편 노즈와 함께 부산에 상륙한 부대들이 하루 간격으로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후루카와 병참감은 ‘중로’ 병참선 전체를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낙동강의 수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삼랑진, 대구, 문경, 하담에 병참사령부를 설치하기 위해 병참사령관을 11일 즉시 출발하도록 지시했고,[27] 이어서 문경새재 이북의 안보(安保), 장호원, 이천, 조현 등 네 곳에 추가로 병참사령부를 설치할 요원을 파견하고 부산에는 병참병원도 설치했다. 아울러 대본영도 도로 수리에 투입할 석공 200명과 우물 파는 기술자 20명도 추가로 파견했고[28], 소의 점염병이 발생하자 대본영은 일등 수의사를 파견하는 등 제5사단 ‘중로’ 보급선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29] 이후에 후루카와 병참감은 부산-송파진 사이에 무려 20개의 병참지와 9개의 병참 창고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14일 병참총감에게 보고했다.[30]

‘중로’ 병참선에 대한 현장 지휘관의 문제제기는 대본영을 동요시켰다. 8월 14일 상주에 도착한 노즈 사단장은 도로의 상태, 한전과 식량의 부족, 조선인 인부의 고용난을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대본영에게 후속 부대들을 원산항이나 인천항으로 수송해 달라고 요청했다.[31] 노즈는 ‘중로’ 병참선으로 제4차 수송부대의 병력과 물자를 한성까지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무모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32] 결국 8월 15일 대본영은 원래의 계획을 변경하여 히로시마에 대기중인 제4차 수송부대를 인천항으로 보내기로 했다. 8월 16, 17일 양일에 걸쳐 히로시마의 우지나항을 출항한 제4차 수송부대에게 대본영은 19일 인천으로 상륙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제4차 수송부대가 탄 11척의 수송선은 9척의 해군 함선의 호위를 받으며 부산을 출항했다. 이로써 일본군의 ‘중로’ 병참선은 중지되었고 청일전쟁 종전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대본영은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로 ‘중로’ 병참선의 사용을 중지하면서 대안으로 이동이 용이하지만 동학농민세력이 위협이 상존한 ‘서로’ 병참선을 택하지 않고 부산-인천 간의 해로를 선택하는 위험을 감수했다.

Ⅳ. 조선인의 눈에 비친 ‘중로’ 병참선

---

26) 「申報、第5師団長野津中将から参謀総長宛、8月24日」 JACAR Ref.C06061762600、明治27年自6月至9月「混成第9旅団 第5師団 報告」;「意見書 9月30日」JACAR Ref.C06061765800、明治27年自6月至9月「混成第9旅団 第5師団 報告」.

27) 일차로 출발한 대대와 노즈 사단장 일행은 병참사령부 예정지인 하담 대신에 강의 맞은편에 위치한 가흥을 이용했다.「8月」JACAR Ref.C06062203900、明治27年6月「陣中日誌7兵站総監部27自6、5至9、3」, 1894년 8월 10일 참조.

28) 1894 년 8 월 13 일·19 일 자 기 사.「8 月」JACAR Ref.C06062203900、明 治２７年６月「陣 中日 誌７兵 站 総 監部２７自６、５至９、３」(防衛省防衛研究所) .

29) 1894년 8월 11일자 기사(「8 月」JACAR Ref.C06062203900、明治２７年６月「陣中日誌７兵站総監部２７自６、５至９、３」(防衛省防衛研究所)).

30)「8月」JACAR Ref.C06062203900、明治27年6月「陣中日誌7兵站総監部27自6、5至9、3」, 1894년 8월 14일 참조; 國史編纂委員會 編, 1987,『駐韓日本公使館記錄』(2卷), 國史編纂委員會, 二(9) 참조. 병참지는 총 20개, 창고 위치는 별표 표시.

☆釜山	亀浦	勿禁店	☆三浪津	密陽	清道	☆大邱	多富	海平	☆洛東
台封	☆聞慶	安保	忠州	☆河潭	長湖院	☆利川	昆池岩	☆島硯	☆松坡鎮

31)『野津日記』, 1894년 8월 14일자.

32) 第五師団長野津道貫中将,『明治二十七八年陣中日記』(1894年六月四日 1895年5月15日),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野津道貫関係文書』28-1·28-2(大谷正,『日清戦争』, 77쪽, 재인용).

부산에 상륙한 제5사단의 부대들이 대부분 '중로' 병참선으로 북상한 후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본영은 '중로' 병참선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고자 했다. 8월 22일 대본영이 제5사단 병참감 후루카와를 한성으로 보내지 않고 부산에서 계속 '중로' 병참선을 구축하도록 보직을 변경시킨 것은 '중로' 병참선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대본영의 의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8월 22일 대본영은 제5사단 병참감 후루카와에게 다음과 같은 훈령을 내렸다.

> 1. 재한반도 야전군의 병참선을 둘로 나누되 한강을 두 구간의 경계로 삼는다. 제1구간은 부산에서 송파진(松坡鎮)까지의 노선으로 하고 이것을 중로병참선(中路兵站線)이라고 부른다. 제2구간은 송파진에서 야전군의 소재지까지로 한다.
> 2. 이제부터 대좌를 중로병참감(中路兵站監)으로 하고 병참총감의 직속시킨다. 또 제2구간 즉 제5사단의 병참선과 연락하면서 그 임무를 다해야 한다. (후략)[33]

전시 중에 해외파견 야전군의 병참 책임자를 교체시키는 파격적인 인사조치가 취해졌다. 동시에 대본영은 후루카와에게 "27, 28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중로'로 병력을 보낼 계획"이니 "도로의 수리, 숙소의 준비 등을 신속하게 완성"하라는 훈령을 내려 '중로' 병참선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고성 부사 오횡묵의 『고성부총쇄록(固城府叢瑣錄)』에는 제5사단이 대구를 지나 한성으로 북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갑오년 7월 15일(양력 1894년 8월 15일)**
> 김원하는 서신에서 "(전략) 또 일본인 4, 5천 명이 입영하여 본부(本府, 대구부)를 빌려 며칠 묵고 지금은 이미 경성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천여 명이 남았는데 달성에서 토목 공사를 크게 하고 있다. 또는 입영하여 묵으면서 밤에는 꼭 출입문을 열어두었다. 이 까닭에 영내의 사람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 인심과 물정이 매우 동요하고 있었다"고 했다.
> 甲午 七月十五日 己丑
> 金元河書："……且日人四五千名入營，借與本府容接幾日，今已上去京城。而千餘名留住，大起土木於達城，或入處營，內夜必留門。如是之故，營內內屬擧皆避處他地，人心物情擾擾無比。"云矣。

이 기록에서 제5사단의 마지막 부대가 8월 15일을 전후해서 대구를 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군 보병 1개 대대 천 명 단위로 하루 차이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계 4, 5천 명은 제5사단의 제4차 수송부대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인 천여 명이 남아서 토목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중로 병참선을 견고하게 구축하라는 대본영의 지시와 일치한다.

놀랍게도 일본군은 마지막 부대가 '중로 병참선을 지나간 후에도 병참선을 강화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

33) 1894년 8월 22일자.「第五師團長へ與ふる命令」및「第五師團古川兵站監に與ふる命令」참조.「8月」JACAR Ref.C06062203900、明治２７年６月「陣中日誌７兵站総監部２７自６、５至９、３」(防衛省防衛研究所).

7월 17일(양력 1894년 8월 17일)

상포(上浦)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묵었다. 4, 5척의 범선에 모두 일본인이 탔는데 군량 및 군수품을 수송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또 최근에 쌀과 보리 수만 석을 갖고 지나갔지만 연도에서 폐를 끼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심이 불안한 상황은 피할 수 없다.

七月十七日 辛卯

登途上浦，宿至江上，四五帆船皆是日人，軍糧軍物輸去者云。而近日所過者，米與麥爲數萬石，所經沿路雖無作弊，人心疑懼，勢所不可無也。

여기서도 '중로' 병참지와 창고 등에 대량의 군량미가 비축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혹 '중로' 병참선이 다시 사용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다음은 동학농민군 세력이 확산되는 현상과 일본 '중로' 병참선 시설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사료이다.

9월 2일(양력 1894년 9월 30일)

전운사가 그간 건강상 당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동도(東徒)의 왕래가 매우 심해서 잠시 광산의 백련사로 피신갔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다. 혜전(蕙荃)의 집에 가서 회포를 나누었다. 점심때 혜전(蕙荃)이 "이번 대구로 갈 때 직로에는 여기저기 동학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서(東鬧旁午) 반드시 밀양로(密陽路)를 거쳐서 올라가야 합니다. (일본) 병참을 의지할 수 있고 또 밀양에서 일박해도 좋을 듯 합니다."고 말했다.

九月二日

轉運使間以身未差，且東徒往來甚逼，暫避于匡山白蓮寺，失晤。至蕙荃家敍懷。午飯，蕙荃曰："此去大邱，直路東鬧旁午，必由密陽路上去，有兵站可賴，且一宿密陽似好矣。"

9월 말 가을 추수가 일찍 끝나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동학농민세력이 낙동강을 넘어 동쪽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것은 조선 관리들이 '중로' 병참선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안전하다고 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0월에 들어서서는 전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중로' 병참선에 있는 주요 시설들을 일본군이 점령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9월 5일(양력 1894년 10월 3일)

밀양, 예림에 이르렀다. 듣는 바로는 영남루가 일본인에 의해 점령되었다. 남강에 운교를 가설하고 수천 명이 읍에 가득 차 있어서 소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중략) 유천(楡川)의 역점에서 묵었다.

九月五日

至密陽、禮林。聞之，則嶺南樓爲日人占據，南江起雲橋，而彌滿於邑底，滿數千人，似有紛鬧之慮。……至楡川驛店止宿。

여기서도 일본군이 '중로' 병참선의 각종 시설들을 구축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아래의 사료는 '중로' 병참선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9월 6일(양력 1894년 10월 4일)

신시(오후 3시~5시) 대구 감영에 들어갔다. (중략) 순상을 뵙고 읍의 사정과 연도에서 들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다. 순상의 말에 따르면 "(전략) 또 도 안에 민노(民鬧)가 발생한 읍이 거의 60여 개가 있다. (중략) 그중에서 용풍(龍醴)、상선(尙善)、금성(金星) 등의 읍은 매우 심각하다. (중략) 일본인의 상황은 (음력) 5월부터 동래에서 내지를 거쳐 상경한 자가 대략 5, 6만 명이 있었다. (이들이) 지나간 길은 300명이 대열을 이루어 3일간 10리 길을 좁은 곳을 상관하지 않고 논밭을 메우고 나무를 베어 평탄하게 만들었다. 약 40리마다 하나의 병참을 두었다. 그중에서 동래, 밀양, 청도, 대구, 독명원, 해평, 낙동, 대봉, 문경은 대참(병참사령부)이다. 여기에는 일본군이 많으면 2, 3천 명 적어도 천 명 이상이었다. 나머지 소참(병참지)은 모두 1, 2백 명이라고 한다. 사람을 고용할 경우 10리마다 엽전 2, 3냥(을 주고), 우마의 경우 고용할 때 4, 5냥을 주는데 팔 경우에는 값이 3배로 증가한다." (중략) 나는 "지나갈 때 본 결과 거친 도로는 전보다 평탄하고 넓어졌다. 이른바 동도와 민요도 점차 창궐해져서 실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九月六日

申刻入大邱營.....謁巡相略陳邑事，反(及？)沿路所聞。巡相曰："……且道內民鬧之邑，幾至六十餘。而固城則賴令條處有方，勘斷無遺，今至妥帖，可知恢刃有餘。其他各邑，則率皆謬戾壞亂，聞之迷悶重，以東徒四起，無處無之。**而就中龍醴、尙善、金星等邑，充斥忒甚。**日前星牧避鬧，入營請見，故責以不能坐受。而輕旋動來之意，不許入見，使之還官。今尙逗留營下樣。而各邑駭聽之報，雪片也似飛至，不得已差中軍領三百兵隊，先從尤甚處剿平矣。昨聞星州被東徒燒火，城內外千餘戶，沒入灰燼云。故雖已關飭，中軍往討，然乾淨無期，已極憂歎。**以日人言之，自五月由東萊從內地上京者，恰爲五六萬名。而所經道路三百名或作隊限三日治十里路，狹窄處不計，田畓塹高，塡深拔石伐樹，期在平坦。而約四十里置一兵站，如東萊、密陽、淸道、大邱、獨鳴院、海平、洛東、胎峰、聞慶是爲大站。而日兵多至二三千人，少不下千人。其餘小站，則皆一二百名云。至於大邱，則日兵請接公廨，不得不許施，但幸無作弊之端。至於雇人，每十里葉錢二三兩，至於牛馬，雇至四五兩，若販買之境，則價增三倍。**此非貽害貽憂之事，而昇平之久，駭瞠則有矣。由是之故，營下居生者，除非現帶任名，擧懷荷擔，城內城外，幾至枵然，曉諭鎭撫，終歸虛地。巧於此時，身居按藩，報答無術，只夙夕悚懍已也。"**余曰："過見所經道路，果比前平廣。而所謂東徒與民擾，愈往益肆，實係憂悶處也。"** (번역한 부분은 굵은 글씨. 참고용으로 전문을 제시했음)

고성 부사 오횡묵은 대구 감영에서 순상으로부터 일본군의 '중로' 병참선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듣고 소상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조선관리 순상은 일본 병참선의 구조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중로' 병참선을 통과하는 일본인이 5, 6만 명에 이른다는 지적은 부정확하지만, 예를 들어 40리마다 병참지를 설치하고 주요 거점에는 병참사령부를 두는 일본군의 병참 시스템뿐만 아니라 병참지에는 2, 3백 명, 병참사령부에는 최대 2, 3천 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특히 조선 인부와 우마를 고용하는 비용을 보면 '중로' 병참선 구축에 대본영의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Ⅴ. 맺음말

일본 대본영은 사전 조사와 정찰을 통해 부산에서 경성으로의 진군 루트를 '중로'로 선택했다. '중로'보다 군대 이동이 용이한 '서로'를 포기한 배경에는 동학농민군의 강렬

한 존재감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동학농민군의 존재는 대본영의 작전 수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로’ 병참선으로의 군대 이동이 난항에 부딪히자 대본영은 ‘서로’를 선택하는 대신에 부산에서 인천으로 대규모 해상수송을 감행했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도 동학농민군의 영향이 확인된다. 이처럼 ‘중로’ 병참선이 중도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본영은 사단 병참감을 책임자로 앉히고 지원을 강화하여 ‘중로’ 병참선의 견고한 구축에 나섰다.

일본 육군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미 황해해전에서 승리하여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계속 강화되고 유지되고 있는 ‘중로’ 병참선의 실상은 조선 측의 기록에 의해서 생생하게 확인되고 있다. 즉 일본은 ‘중로’ 병참선의 의미를 단순한 군대 이동의 통로를 넘어서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중로’ 병참선에 대한 고찰은 지금까지 분절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 연구현황에 대해 하나의 문제제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동학농민혁명과 영호도회소의 농민군활동

김명재(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

• 목차 •

1. 동학 탄생 배경
2. 동학 2대교조 최시형 31년의 실천 사인여천과 포덕천하
3. 1894년 고부농민봉기와 1차 동학농민혁명
4. 2차 동학농민혁명발발
5. 영호도회소의 영남 진출 대일항전의 역사
6. 영호도회소의 영남 진출 대일항전의 역사
7. 영호도회소의 최후항전

1. 동학 탄생 배경

수운 최제우는 「논학문」에서 "도道는 비록 천도天道이나 학은 동학東學이다" 라고 천명하였다. 또한 '동학' 은 동방지학東方之學의 준말로 동국東國의 의義[1]에서 취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1824년 경주에서 탄생하여 1860년 대각을 이룰 수 있었던 근본 동력은 보국안민輔國安民[2]의 길을 찾는 마음이었다. 수운의 6(7?)대조 정무공 잠와 최진립崔震立[3]은 청백리의 상징적 인물이었으며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임진왜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의병장이었다. 병자호란속 최진립은 노구를 이끌고 출전하였다가 결국 전사하였는데, 이때 함께 순절한 두 종(옥동과 기별)의 제사에 때에 절을 하는 소신의 있는 가풍 속에서 성장하였다. 바로 경주 최부자집의 후손으로 7대손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속 경주 최부자집의 보국안민은 7대로 이어져 왔다.

17~18세기 산업혁명을 성공한 서양의 제국주의적 야욕은 아시아를 노예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개화라는 미명 아래 조선 또한 외세의 침탈을 벗어나기 어려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었다.

대외적인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제폭구민際暴救民의 배경을 통해 근원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수운에게 1860년 경신년 4월 侍天主 (모두가 한울의 기운을 모시고 태어났으므로 모두가 평등하다 - 대동세상)의 사상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동학은 단순한 학문적 대각을 벗어난 개벽적 사상이었다.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보

1) 『고종실록』 '名之曰東學 取東國之義'
2) 보국안민: 나라를 도와 국정을 살피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동학농민혁명군의 대표 깃발이다
3) 정무공 잠와 최진립(1568~1636) 경주 최씨 임진왜란시 의병을 일으킴, 병자호란 69세의 노구로 용인험천 전사 병조판서 추증 (내 비록 늙어 잘 싸우지는 못 할지언정 싸우다가 죽지도 못하겠는가)
경주 잠와의 자손 최국선은 활인당 活人堂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을 만들어 사방 100리 안에 굶은 사람이 없도록 하였고 19세기 까지도 흉년에 땅을 사지 않고 재산을 1만석 이하로 유지하였다.
12대 최준은 모든 재산을 임시정부와 국권회복단에 기부한 독립운동가 였다 500년을 이어온 보국안민은 국가와 민족을 지켜내기위한 최제우에게 사상적 뿌리였다

국안민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사상은 당대의 신분질서에 결코 용납되지 않는 불온적 사상이었다. 5천년동안 봉건적 지배로 억압의 수단 이었던 신분제는 1차동학농민혁명을 통해 역사의 퇴물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것이었다.

망해 가는 조선의 통치자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위험한 사상이었다. 조선 지배계급은 좌도난정으로 최제우를 처형하였다. 그러나 한번 깨어난 조선민중의 열망은 들불처럼 새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2. 동학 2대교조 최시형 31년의 실천 사인여천事人如天과 포덕천하布德天下

최제우의 사망 후 동학은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듯하였다. 그러나 2대 교조 최시형의 천도를 이루기 위한 천명은 고비원주高飛遠走[4](1864~1894)로 사인여천事人如天, 포덕천하布德天下[5]하여 강원, 전라, 충청,경상, 황해도 등 수백만의 교단조직이 형성되었다. 최시형은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는 것 같이 실천하였으며 성리학의 한계성을 너머 대인접물對人接物로[6] 포덕천하하였던 것이다. 1871년 영해의 교조신원운동으로 정체기를 겪었으나 천도를 위한 최시형의 포덕천하는 수운의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간행함으로써 들불처럼 퍼지게 되었다.
동학의 혁명은 성리학적 정치와 제도 및 통치를 위한 사상이 아닌 진정한 민중의 삶을 개벽하여 혁신적 삶을 살아내고자 한 민중의 선택이었다.

강화도조약이후 내륙의 상권은 침탈되고 대외적으로 농민들의 곡물이 대량 유출되었다.
정치와 사회가 불안정하며 세도·척족, 탐관오리의 수탈로 민심은 이반되었으며 화폐는 혼란스럽고 세금은 가중되었다. 그러나 최시형은 교단을 새로이 정비하고 1892년 보은·삼례집회(1892-93)를 통해 대중을 평화적으로 동원하여 서서히 힘을 쌓아가고 있었다.

모두가 평등하여 남녀노소가 서로 존칭을 하였고 노비와 양반이 또 한 서로를 공경하는 모습이 실현된 세상이었으니 분명코 민중에게는 참 개벽이었을 것이다.
동학의 지도자들이 유무상자有無相資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가난한 사람과 넉넉한 사람이 서로 도와주어 굳게 뭉치게 하여, 어떤 일이든지 같이 나설 수 있게 하였다.
백산기포 시[7] 하루에도 몇십 명씩 입도를 하였습니다. 마치 봄잔디에 불붙듯이 포덕이 어찌도 잘 되는지 불과 일이 삭 안에 서산일군이 거의 동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첫째, 입도만 하면 사인여천事人與天이라는 주의 하에서 상하귀천 남존여비 할 것 없이 꼭꼭 맞절을 하며, 경어를 쓰며, 서로 존경하는 데서 모두 다 심열성복이 되었고 둘째, 유무상자 하여 죽

4) 고비원주: 높이 날고 멀리 달린다는 뜻으로 최제우의 옥중에서 마지막유언이다. 담뱃대 안쪽에서 발견된 글로 최제우 사후 해월 최시형은 35년 동안 고비원주 하였다.
시천주에서 한 단계 더 실천한 事人如天은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해월의 철학적 실천이다.
5) 포덕천하 : 동학·천도교의 포교용어이다. 포덕이란 천지만물의 덕화를 널리 알리고 천지를 부모와 같이 공경하는 실천적 사상이다. 나를 낳아 기르는 부모와 그 이전 천지가 사람을 기르는 이치를 알게 하는 것. 큰 덕을 천하에 펼친다는 뜻이다. 포덕은 천도교의 연호로도 사용되며 최제우가 경주 용담정에서 한울의 깨달음을 받았다는 1860년(조선 철종 11년)을 기준한다. 현재는 포덕166년이다
6) 대인접물 : 사람과 만물을 함께 공경하는 것. 삼경사상 『천도교 창건사』, 『오지영의 동학사』
7) 『개남, 새 세상을 열다 동학혁명과 김개남』 김삼웅(전독립운동기념관장) P 142

이고 밥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도인이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눠 먹으라는 데서 모두 다 집안 식구같이 일심단결이 되었습니다. 그때야말로 대동 세상이었습니다. 동학은 천하가 한 집안이 되고 차별을 없앴으며 대동세상의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학도인이 되면 신분상의 해방과 극심한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데서 농민들은 '새 세상' 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그 거대한 열기 속에서 자연스레 동학에 감화되고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1차 동학농민혁명이후 당당히 민중의 요구로 5천년을 이어온 노비제가 일시에 사라진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혁명적 쾌거였다.
동학은 당대의 민중에게 수천년의 숙원을 시작하는 서막이었다.

3. 1894년 고부농민봉기와 1차 동학농민혁명

1893년 11월 정읍의 신중리 대뫼골에서는 동학도 20명이 주체를 알 수 없도록 사발통문[8]으로 거사하였다.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9]는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시작되어 말목장터의 집결로 관아를 점령하여 만석보를 파괴하였다. 일시적 조정의 회유로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되려 농민들을 강하게 억압하였고 그리하여 1894년 3월 무장기포를 통해 백산대회를 열어 4대강령을 공포하였다.
동학농민혁명군의 4대명의 행동강령과 동학농민군의 12개조 군율을 다음가 같다.

4대강령
-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치지 말라
- 충효를 다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 일본 오랑캐를 쫓아 버리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하라
- 군사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없애라.
- 기강을 크게 떨치고 명분을 바르게 세워 성인의 가르침을 따른다.

12개 조항 군율은 농민군에서 혁명군으로 재편 민중을 위한 동학농민군,도덕적인 군대였다
- 항복한 자는 대접한다
-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 탐욕한 자는 추방한다
- 순종하는 자는 경복한다

---

8) 사발통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1893년 11월 전봉준을 포함한 20명이 모여 원둘레에 서명한 문서이다. 고부군수 조병갑을 비롯한 탐관오리를 벌하고,전주성을 함락한 후에 서울로 진격한다는 내용의 거사계획이 담겨있다. 이는 곧 고부농민봉기가 단순히 조병갑의 폭정대한 우발적 감정 폭발로 일어난 민란이 아니라, 사전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치밀하게 계획한 거사였음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동학농민혁명재단- 2025년 동학농민혁명 유네스코 기록물전시 내용

9) 1894년 1월 동학농민혁명의 전초적 성격이다. 중앙권력을 축출한 목표를 세운 항쟁이었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만세보로 수세착복, 대동미착복 각종 죄목으로 농민들의 재물을 빼앗음 2월 10일 관아를 습격 후 아전들을 징벌하고 곡식을 농민들에게 분배 하여 10여일이 패정을 처리하였다. "전봉준은 전라 일도의 탐학을 없애고 매관 매직하는 권신을 축출하면 팔도가 자연히 일체가 되리라" 말함

- 도주하는 자는 쫓지않는다
- 굶주린 자는 먹인다
- 간활한 자는 없애 버린다
- 가난한 자는 도와준다
- 불충한 자는 없애버린다
- 거역하는 자는 효유한다
- 병자에게는 약을 준다
- 불효한 자는 죽인다

고부농민봉기의 시작으로 1차동학농민혁명은 거대한 물결이 되어 반봉건의 기치를 천명하였다.
1894년 4월 동학농민혁명군들은 황토현에서 최초의 전투를 승리 후 연이어 장성 황룡촌 전투를 승리하고 4월 27일 전주성을 함락하였다. 조선의 심장과도 같은 전주감영에는 태조의 어진이 있었던 경기전이 있다. 조선정부는 차병을 통해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고 동학농민혁명군도 청일 양국의 내정간섭을 원치않아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주화약을 맺고 전라감영에서 철수하였다.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전봉준은 강력한 폐정개혁을 실시하였다. 조선정부도 6월 개혁의 교정청을 설치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전라도 53개 군현에는 집강소를 통해 최초의 민중자치기구가 실현되고 있었다. 집강소는 치안과 폐정을 시정하고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다.

전라도 53개군현의 폐정개혁은 수많은 노비문서가 불타고 해방된 시간들이었다. 봉건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근대적 개혁의 역사들이 시작된 것이다.
1차 봉기후 동학농민군이 요구하였던 폐정계혁은 총 12개조로 축약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강력한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다. 각종 폐단과 개혁이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역사였다. 우리는 이역사적 기억을 너머 131년 지금 미완의 대동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131년 전의 조선의 민중들이 지금의 민중에게 남겨준 커다란 선물이며 그들의 목숨을 건 결과인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1895년 전봉준 판결선고서 [10]에는 27개의 폐정개혁 내용 중 14개의 기록이 남겨져 있다.
- 국결을 늘리지 말 것
- 보부상의 폐단을 금지할 것
- 도내의 환전은 전임 감사가 이미 거두어 갔으니 다시 민간에게 징수하지 말 것
- 대동미를 상납하기 전에 각 포구에서 잠삼이 쌀을 사는 것을 금지할 것
- 탐관오리를 모두 쫓아낼 것
-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관작을 팔며 국권을 농단하는 사람을 모두 쫓아낼 것
- 관장이 된 자가 해당 경내에서 장사를 치루거나 전답을 사지 못하게 할 것
- 전세는 예전대로 할 것
- 연호잡역을 줄일 것

10) 전봉준 판결선고서 - 형사재판원본 1895 국가기록원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조선 정부에 체포되어 처벌받은 동학농민군다수에 대한 재판기록인「형사재판원본」전봉중 판결선고서를통해 동학농민군의 지향과 인식은 물론, 27개조 폐정개혁안 중 14의 내용을 알 수 있다

- 포구 어염세를 혁파할 것
- 보세와 궁답은 시행하지 말 것
- 각 읍의 수령이 백성의 산에 투장하지 못하게 할 것

4. 2차 동학농민혁명발발

1894년 1차 동학농민혁명 후 전라도 53개 각 군현에서는 폐정개혁이 실시되고 있었으나 일본은 텐진조약[11]을 빌미로 조선을 식민기지화하려는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동학농민군의 자진해산으로 조선 정부는 청군에 돌아 갈 것을 청했고 청의 원세게(위안스카이)는 오토리 일본 공사에게 동반 철군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더 많은 병력을 증원하여 경복궁 침탈을 강행하였고 고종은 압제되었으며 조선의 군대는 해산되고 친일내각으로 교체되었다
청일전쟁[12]이 이 땅에서 발발하여도 아무런 힘이 없는 조선정부였다.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의 경복궁 침탈[13]로 인한 항일구국전쟁이며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고 친일정권을 내세워 전국의 동학농민군은 재봉기한 것이다. 1894년 6월 2일 일본의 이토히로부미는 조선 출병을 결정하고 전쟁수행을 위하여 히로시마 대본영을 설치하였다.
친일내각의 조선정부는 일본과 조일양국맹약 '朝日兩國盟約'[14]을 체결하였다. 일제의 전선가설기대의 설치와 군용전신선 가설[15]을 살펴보면 1894년 6월 3일 조선정부는 청국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군사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작 대병력의 출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국내의 '행정정리'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중의원에서 내각탄핵안이 가결되어 곤경에

---

11) 텐진조약 : 1884년 갑신정변으로 청·일 양국 군대의 공동철수와 공동 파병권 약속
1882년 임오군란을 포함 조선은 점점 주권을 상실하고 있었다. (청군 3천명 주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체결: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기, 청나라 상인 특권인정, 일본과 재물포 조약 체결 : 일본에 배상금 지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 허용) 얼마 후 1884년 급진개화파의 갑신정변으로 청의 내정간섭이 심화 되었다. 청일 약국의 조선 지배권을 두고 맺은 조약이었다 .조선은 더 많은 자주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12) 청일전쟁: (1894년 7월~ 1895년 4월) 조선 민중에게 조선의 국권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조선의 풍도해전, 성환전투, 평양성 전투, 황해 해전을 통해 청은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잃었다.
청나라의 요동전투, 웨이하이 전투를 끝으로 북양 함대가 궤멸되고 정전협정을 하였다. 일본은 조선에 친일 내각을 수립시켰다.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둘러싸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벌어진 전쟁이었다.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지형은 근본적인 변화가 되었고 일본은 제국주의를 팽창하는 계기를 삼았다.

13) 1894년 6월 21일 경복궁 침탈: 일본은 1894년 6월 텐진조약을 빌미로 제물포에 상륙하였다. 6월 21일 오전4시 혼성여단장 오시마 요사마사는 무력으로 경복궁 건춘문을 도착 , 발포가 있자 반대편 영추문을 도끼로 부수고 오전 7시경 고종을 채포하고 협박하여 "무기를 버리라'는 가짜 왕명으로 수비군을 무장해제 시켰다. 오후 2시 까지 총격전이 있었다. 8월 1일 칙령134호를 내려 언론을 사전 검열하였다.

14) 조일양국맹약: 1894년 8월 26일 일본은 고종을 압제후 친일내각을 세우고 일본과의 강제적 군사동맹을 맺었다. 대청전쟁을 수행할 시 서로 공수상조 한다는 군사동맹으로 양국은 전쟁시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원활히 제공받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15)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김삼웅·한시중 2014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명령의 전달과 상황보고 등을 위한 전신선의 확보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당시에 조선에는 서울·인천간의 경인선과 서울·의주간의 서로전선, 서울·부산간의 남로전선, 서울·원산간의 북로전선이 있었다. 그런데 일본이 전쟁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부선이 불통되는 일이 잦았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경부선보다는 서울에서 청국 북부를 지나 상해까지의 청국 전신선을 경유한 해저전신을 주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청국과 전쟁까지를 계획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기존의 청국 라인을 이용할 형편이 못되었으며 이에 따라 독자적인 군용전신선을 가설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은 6월 26일 '전선가설기대'를 편성하였다. 이 전선가설기대는 2개대로 편성되었다. 제1기대는 본 부대와 2개 지대로, 제2기대는 본부대와 1개 지대로 편성되었다. 본부에는 각기 사령관 아래에 부관과 군리軍吏 그리고 재료주관 장교가 한 명씩 편성되었다. 제1기대 사령관은 길견정吉見精 소좌, 제2기대 사령관은 마장정웅馬場正雄 소좌가 맡았다.

처해 있던 이등박문伊藤博文 내각은 6월 2일 조선이 청국에 파병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전보를 받고 중의원을 해산하고 동시에 조선 출병을 결정하였다. 일본의 출병 결정은 조선이 청국에게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하루 전이었으니 이등박문 내각이 국내의 정치 문제를 대외 문제로 진화시키고자 한 흔적이 역력하다. 일본은 6월 5일 전쟁수행을 위한 대본영을 설치하였으며, 내각의 지시를 받은 조선공사 대조大鳥는 육전대 병력을 이끌고 9일 인천에 상륙하여 다음 날 서울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보병 제11연대를 선발대로 하는 혼성여단이 12일 인천에 상륙하였다. 혼성여단 내에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병참부와 야전병원까지 포함시켰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조선을 둘러싸고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청일전쟁은 일본의 정략적인 기도에 의해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광도廣島에 사령부를 둔 제5사단을 조선에 파견하면서 그 산하에 전선가설기대電線架設技隊를 설치하고 조선의 허가도 없이 경부간 군용전선을 가설하였다. 2차 동학농민혁명의 발발이전 농민군들은 병참기지의 전용가설선을 지속적으로 절단공격하였다. 각처에서 일어난 동학군은 이들 일본 병참 기지를 습격하고, 군용 전신선을 절단하여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했다.

일본의 노골적 조선침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가 시작되었다. 남접의 오지영[16]은 최시형을 만나 북접과 남접의 합세에 함께 봉기할 것을 권유하여 남북접 조화책을 성공하고 양호도찰의 임무를 맡았다.
전국적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음력 9월 18일이다. 충북옥천 청산에서 동학 2대교주 해월 최시형은 총기포령을 통지하고 전국의 동학농민혁명군의 본격적 항일 활동을 선포 하였다.
전경주를 선봉, 정규석 포를 후군, 이종훈 포를 좌익으로, 이용구 포를 우익으로, 손병희를 종군통령으로 임명하고 북접군 총사령으로 지휘하게 하였다.

다음은 동학 2대 교조인 해월 최시형이 남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총동원령인 초유문이다.

초유문招諭文

주역에 이르기를 대재大哉라 건원乾元이여, 만물이 자시資始하고 지재至哉라 건원乾元이여, 만물이 자생이라 하니 사람이 그 사이에 만물의 영이 된지라. 부모는 낳고 스승은 가르치고 임금은 기르나니 그 은혜를 갚는데 있어 생삼사일生三四日의 도道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찌 사람이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선사先師께서 지나간 경신庚申年 천명天命을 받아 도를 창명하여 이미 퇴폐한 강상綱常을 밝히고 장차 도탄에 빠진 생령生靈을 구하고자 하더니 도리어 위학僞學이라는 지목을 받아 조난순도遭難殉道 하였으니 아직도 원통함을 씻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31년이라. 다행히도 한울이 이 도를 망亡케 하지 아니하여 서로 심법心法을 전하여 전국을 통한 교도가 몇 10만인지 알 수 없으되 사은四恩을 갚을 생각은 없고 오로지 육적六賊의 욕을 일삼으며 척화를 빙자하여 도리어 창궐을 일으키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오. 돌아보건대 이 노물老物이 나이가 70에 가까운지라 기식

16) 원암오지영(1868~1950): 전라도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교육자, 사상가, 종교인, 천도교 혁신운동을 주도하였다. 1940년 『동학사』를 집필하여 동학의 교리와 역사, 동학농민전쟁과 천도교 혁신운동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이자 회고록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氣息이 엄엄하되 전발傳鉢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옷깃에 차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도다. 이에 또 통문을 발하노니 바라건대 여러분은 이 노부의 마음을 양찰하고 기필코 회집하여 비성을 다하여 천위주광天威蛀纊의 아래 크게 부르짖어 선사의 숙원을 쾌히 펴고 종국宗國의 급난에 동부할 것을 천만 바라노라.

전봉준의 격문[17)]

일구가 구실을 만들어 동병하여 우리 임금님을 핍박하고 우리 국민을 어지럽게 함을 어찌 그대로 참을 수 있단 말이요. 옛날 임진란 병화 때에도 능침을 파헤치고, 궁궐과 종묘를 불태우고, 군친을 욕보이고, 국민을 살육한 것은 신민이 공분으로 천고에 잊을 수 없는 한이었소. 초야의 필부 매동으로서도 오히려 울분과 근심이 그지없는데, 하물며 각하는 세록충훈으로서 더욱이 평민 소부의 몇 갑절이 아니겠소. 지금 조정의 대신은 망령되고 구차하게 생명을 유지하려 하여, 위로는 군부를 위협하고 밑으로는 국민을 속여, 왜이와 연결하여 삼남의 국민에게 원한을 사며, 망령되게 친병을 움직여 선왕의 적자를 해하려 하니, 참으로 그 무슨 뜻이오. 지금 나의 하는 바는 극히 어려움을 알지만은, 그러나 일편단심 죽읊을 각오하고 관철하려는 바요. 천하의 인신으로 이심을 품은 자를 쓸어 버려서 선왕조 5백 년 동안의 유육의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니, 각하께서도 맹성하여 의로써 더불어 죽음을 각오한다면 천만 심행이겠소.

전봉준은 1895년 음력 2월 9일 1차 심문에서 제2차 기포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귀국(일본)이 개화라 칭하고 처음부터 일언반사도 민간에 전해 알림이 없고, 또 격서도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도성에 들어와 야반에 왕궁을(6월 21일 경복궁점령사건) 격파하여 주상을 놀라게 해서 움직이게 했기로 초야의 사민들이 충군애국의 마음으로 강개함을 이기기 못하여 의려(의병)를 규합하여 일본 사람과 접전하여 이 사실을 한 차례 청해 묻고자 함이다.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국토와 국민과 국권을 유린하는 일본군에 대한 민족적 항쟁이었다. 정부군이 일본군에 구사되어 그 동학군 섬멸 작전의 앞잡이 꼴이 되었으나, 일부 관료 사이에는 민족의식이 대두하였고 전 봉준 역시 동족 의식에 호소하였다. 외국 침략에 대한 저항은 이제 농민들의 반봉건적인 투쟁에서 항일 구국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근대적인 민족의식의 태동을 의미하고, 또 그 명맥이 그 후에 의병의 대일항전으로 이어졌다.

〈표1〉 호남 동학 농민기포군 11만5천[18)]

17) 『한우근 저 1976 교양 국사 총서 19권 1976년』

18) 오지영의『동학사 새 세상을 꿈꾼 민중을 기록하다』 P371 동학사, 출처 동학농민봉기 한우근저 (교양 국사 총서 19권 1976년)호남의 전봉준과 호서의 손병희 양대장이 서로 만나 손을 잡으니 일면에 옛같이 간담이 상조하고 지기(志氣)가 부합되는 지라. 드디어 형제의 의를 맺어 생사고락을 함께 맹세하니 전봉준은 형이고 손병희는 아우가 되었다. 이날로부터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장막에서 잠을 자고 기타 모든 일에 동일한 보조를 취해 나가기로 결심하였다. 남접의 동학군은 북접의 참여로서 그야말로 100만 원군을 얻은 셈이 되었다. 혁명 참여를 결정한 해월은 신속하게 진영을 갖추도록 했다. 전경주의 포를 선봉, 정규석 포를 후군, 이종훈 포를 좌익, 이용구 포를 우익, 손병희를 종군통령으로 임명하여 각 포를 총지휘도록 하였다. 손병희는 북접군 총사령이 된 것이다. 북접농민군 10만

전주	최 대봉, 강 수한	5천명
고창	임 천서, 임형로	5천명
태안	최 경선	7천명
남원	김 개남	1만명
금구	김 봉득	5천명
함열	유 한필	2천명
무장	송 경찬,송 문수,강 경중	7천명
영광	오 하영, 오 시영	8천명
정읍	손 여옥, 차 치구	5천명
김제	김 봉년	4천명
고부	정 일서, 김 도삼	6천명
삼례	송 희옥	5천명
순창	오 동호	1천5백명
원평	송 태섭	7천명
장흥	이 방언	5천명
해남	김 병태	3천명
무안	배 규인	2천명
장성	기 우미	1천명
나주	오 권선	3천명
함평	이 ㅇㅇ	1천명
흥덕	고 영숙	2천명
순천	박 낙양	5천명
흥양	유 희도	3천명
보성	문 장형	3천명
광주	박 성동	4천명
임실	이 용거,이 병용	3천명
담양	김 중화	3천명
합계		11만5천5백명

친일내각을 구성후 조선의 군대를 해산하고 장위영 군관 이두황을 죽산부사로 동학농민혁명군에 대한 본격적 토벌을 시작하였다. 실질적 군통수권은 조선정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후비보병19대대 미나미 고시로에게 주어졌다.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3개 중대를 이끌었다. 이때 남·북연합군은 논산에서 대본영을 설치하였다.

< 표2 >북접 산하 호서동학군 기포상황 10만

지명	주도인물	지명	주도인물
청주	손천민・이용구	양근	신재준
보은	김연국・황하일・권병덕	지평	김태열
목천	김복용・이희인	원주	이화경・임순화
옥천	정원준・강채서	횡성	윤면호

서산	박인호	홍천	심상현・차기석
신창	김경삼	충주	신재연
덕산	김○배	수원	김내현
당진	박용태・김현구	함열	김방서・오지영
태안	김동두	익산	오경도・고제정
홍주	김두열・한규하	옥구	장경화・허진
면천	박희인	임파	진관삼
안면도	주병도	부안	김석윤・김낙철
남포	추용성	만경	김공선
공주	김지택・배성천	여산	최난선・고덕삼
안성	정경수・임명준	고산	박치경
양지	고재당	무주	이응백
여주	임학선・홍병기	임실	이병춘
이천	김규석・김창진	전주	서영도・허내원

전봉준의 요청으로 전라감사 김학진은 동학농민군의 식량을 조달해주는 운량관역할을 맡았다.
오지영의 동학사중 2차 기포당시 남·북접연합군의 본영으로 동학 토벌군이었던 유도 수령 이유상[19]李裕尙이 진군을 멈추고 단신으로 전봉준을 만나 의형제를 맺고 합세한다.
또한 여산부사 겸 후영영장 김원식[20]은 조정에서 특별히 호남동학토벌대장으로 중임을 맡았다. 그도 또한 논산 대본영으로 전봉준을 만나기를 청하였다. 자발적으로 전봉준을 만난 김원식도 전봉준과 의형제를 맺고 합세하였다.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려 조선에 출전했던 청군은 일본과의 전쟁이 패하자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반일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여산부사 유제관[21]은 전봉준에게 세미 3백여석을 군량미로 보태 사용토록하였으며, 짚신3천여 켤레를 거두어들여 동학농민군의 군수용품으로 조달하엿다. 같은 고을에서는 전봉준이 경계를 지나갈 때 소 7마릴 잡아 농민군들에게 먹였다.

전봉준은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반일노선의 합류를 권하였으나 박제순은 거절하였다. 공주성을 향하여 각지의 동학군은 차례차례 집결하여 들어갔다. 논산에서 공주까지 사람들로 가득찾다. 순무사 신정희와 선봉장 이규태, 충청감사 박제순[22]과 서산 군수 성하영과 참모장 구환희와 영관 이진호와 죽산 부사 이두황[23]과 대관 이겸제등이 일본군과 합하여 동학군과 접전하였다.

---

19) 이유상 :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민보군을 이끌고 공주 건평에서 논산으로 향하였으나 논산에 집결한 남접군의 규모에 놀라 자신이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동학의 실체와 전봉준의 인물됨을 보기 위하여 단신으로 남접 동학농민군의 진영을 방문하였다. 이유상은 전봉준의 인물됨을 보고 감동하여 동학농민군에 투함함과 함께 전봉준과 형제의 의를 맺었다.
오지영의『동학사 새 세상을 꿈꾼 민중을 기록하다』P389

20) 김원식: 호남동학토벌대장으로 여산에서 전봉준을 스스로 찾아가 합세하였다

21) 유제관: 전남 구례출신으로 민종렬과 호남지역의 군사모집을 책임지는 호남소모사 였다. 『매천야록』1장에도 유제관의 이름이 나온다

22) 박제순 :을사오적, 조선의 외교권을 넘긴 대표적 민족반역자

23) 이두황 :명성황후 시해범, 친일반민족 행위자

5. 1894년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의 설치와 구성

〈표3 영호도회소 조직 구성[24]〉

전남 동부 지역은 전라좌수영 사도진, 방답진(구 돌산포), 여도진, 녹도진, 발포진 등 5개진포(鎭浦)와 5관(官) - 순천도호부, 낙안군, 흥양현, 보성군, 광양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역	지위 및 성명(출신)	사망 기타
영호 도회소	영호대접주嶺湖大接主 김인배金仁培(금구) 영호수접수嶺湖首接主 유하덕劉夏德(순천) 영호도집강嶺湖都執綱 정우형鄭虞炯(순천) 성찰省察 이우희李友會 순천도성찰省察 권병택權炳宅(순천) 광양순천수접주光陽順天首接主 손작란 孫作亂(순천) 순천서면접주 順天 김학식金鶴植	광양 효수(12. 7) 광양 효수(12. 8) 순천 포살(12. 6) 좌수영 압송 효수(12.11) 좌수영 압송 효수(12.12) 장흥 고전산 체포(1895. 9) 광양읍 포살(12.11)
순천	서면 접주 김영구 金永九·김가金哥 마부馬夫 이복근李卜根 별량면 접주 김영우金永友 월등면 접주 남정일南正日 율촌면 접주 정제찰鄭在哲 성찰 정지규鄭志圭, 황학연黃學連, 위광석魏光石 송광면 성찰 김배옥 金培玉 읍북내 최종복崔宗卜 쌍암면 접사 이우희李友會 아들	좌수영 압송 효수 (12.12) 長房囚 좌수영 압송 효수 (12.12) 좌수영 압송 효수 (12.12) 長房囚 長房囚 長房囚 장방수 순천 타살
광양	봉강면 접주 박흥서朴興西 인덕면 접주 성석하成石河. 박소재朴小才. 박치서朴治西 사곡면 접주 한군협韓君夾 한진유韓辰有 옥룡면 접주 서윤악徐允若.서향약徐亨若. 이중례李仲禮. 하종범河宗凡. 서통보徐通甫 월포면 접주 김명숙 金明淑 섬거역 도접주 전갑이全甲伊(광양) 도집강 정홍섭丁洪燮(광양) 동몽 조백원趙伯元(광양)	광양 포살(12. 7) 광양 포살(12.8~9) 광양 포살(12. 8,10) 광양 포살(12. 8) 광양 포살(12. 9) 광양 참수(12.10) 광양 참수(12.10) 광양 포살(12.10)

24) 1894년 12월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 광양현 포착 동도성명성책, 광양섬계역포착동도성명성책

경상도	양산 접주 황두화	순천타살12.12
광주	성찰 박현동	순천타살12.12
동외접	서기書記 오준기吳準己(운봉)	순천 타살(12.12)

1592년 임진왜란후 전남 동부 6군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는 오랫동안 같은 역사적 공동체를 이루었다. 특히 전라좌수영 5관 5포의 지역적 특성은 호국의 성지이며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켰던 민족적인 뿌리이다.

1592년 2차 영남의 진주성전투에 호남의병 3천은 10만 대군의 왜적 중 3만 8천을 도륙하고 장렬히 전사하였디. 임진왜란이 7년 전쟁으로 이어진 원인도 호남의병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차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왜군의 최대 초토화 대상은 전라도였다. 이 역사로부터 우리 지역의 왜적에 대비한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대승적 선택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성웅 이순신은 임진왜란중 호남에 대하여 국가군저 國家軍儲 개고호남 皆靠湖南 약무호남 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25]라 남겼다

1차 동학농민혁명이 전주화약을 맺으며 6월 말 전남 동부 6군의 중심인 순천도호부에도 영호도회소[26]가 설치되었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꽃피웠던 역사적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또 한 영호남을 연대하여 경남서부지역을 해방하고 집강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전주화약 이후 하동, 광양, 고흥, 낙안, 보성, 순천 등은 김개남 휘하의 좌도 대도소에 속하였다.

전주화약 이후 대도소를 설치한 곳은 5개소로, (1) 보은의 동학본부와 (2)(3)전라도의 좌우도의 대도소가 있었고 (4)순천의 영호대도소와 (5)고창 손화중 대도소가 그것이다. 영호도회소는 산하에 경상도 하동 등과 전라도의 순천, 광양, 흥양 등이 소속되었다.

『천도교서』에는 흥양(興陽, 高興)에서 기포한 이는 구기서·송연호·정영순 등이고, 순천에서 기포한 자는 박낙양(朴洛陽)이라고 하였다. 이때 김개남 장군의 핵심 측근인 김인배[27]가 순천도호부의 영호도회소 대접주가 되었다.

『순무선봉진등록』에 의하면 "6월에 10만 동학군을 이끌고 성중(順天)에 도회소(都會所)를 설치했다." 고 하였다.

---

25) 충무공 전서 하권: 국가군저 개고호남 약무호남 시무국가 (나라의 군수품을 다 호남에 의지하고 있으니 만약 호남이 없다면 곧 나라가 없는 것이다)

26) 영호도회소 또는 영호대도소: 영호도회소의 최초의 연구논문은 호남문화연구「전남 동부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1994.23)이다. 영호도회소와 관련하여 참고한 주요 논저들은 다음과 같다. 김준형,「서부경남지역의 동학군 봉기와 지배층의 대응」(『경상사학』78, 경상대 사학과, 1992); 이상식·박맹수·홍영기 공저, 『전남동학농민혁명사』(전라남도, 1996.06.30); 이이화·우윤, 『대접주 김인배, 동학농민혁명의 선두에 서다』(푸른역사, 2004.08); 김양식,「전남 동부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를 중심으로-」(『호남학』23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95.01); 박찬승,「전남지방의 동학농민전쟁」(『호남문화연구』 제23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95.01); 김양식,「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남도문화연구』 26, 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김인덕,「영호대도소와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동학농민혁명 - 김인배의 활동과 순천, 광양, 여수지역 전투를 중심으로-」(『숭실사학』 통권 제34집, 숭실사학회, 2015.06); 김현익,「제2차 동학농민전쟁기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의 조직과 활동」,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2023).

27) 김인배(1870~1894): 전북 금구 출신이다 일명 용배로 불렸다. 농민군의 10대 지도자로 백산봉기에 김덕명포로 활동하였다. 김개남의 지시에 의해 전라좌도 남동부지역과 영남서부지역을 관장하였다 영호도회소의 간부들은 대부분 학식을 갖추었던 자들로 접주나 접사, 성찰, 동몽 등 주요 직책을 맡았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였다.

영호도회소는 '영호남의 동학의 총본부'란 의미이다. 영호도회소의 간부들은 대부분 학식을 갖추었던 자들로 접주나 접사, 성찰, 동몽 등 주요 직책을 맡았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였다. 농민들 또한 의로운 군대로 인식하여 지지하였다. 당시에 관군은 약탈을 주로 한 반면, 농민군은 백성들의 폐를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군 진영에는 백성들이 가져다 준 식량이 끊이지 않았다. 영호도회소는 각 군현의 마비된 치안기능을 회복하였다. 각 군현이 향리들이 도망하거나 공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자 치안과 행정을 관장하였다. 농민군들은 자신들이 표방한 대로 보국안민적 입장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28]

탐학한 관리였던 순천부사 김갑규는 이미 이임되었으며 순천부사가 2~3개월 공석인 상황에서 손쉽게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가 설치되고 폐정개혁[29]은 원활하게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순천의 동학지도자로 박낙양[30]이 있었으나 전북 금구 출신의 25세 대접주 김인배는 영호남의 총괄 대장으로서 영호도회소를 큰 저항 없이 이끌었다.

박낙양은 순천 동학의 핵심 지도자로 보은취회와 백산전투에도 참여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당시에는 순천의 농민군 5천명을 이끌고 삼례로 참여하였다.

영호도회소는 1894년 6월 하동에 집강소인 영남의소를 설치하였다.[31] 하동에 영호도회소 순천 광양의 동학군 2천명이 들어온 것이었다.

8월에 신임부사 이수홍이 순천부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실질적 행정과 치안 통치는 영호도회소가 맡아 하여 신임부사는 부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영호도회소는 동학의 포교와 치안유지, 폐정개혁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순천・광양・승주・낙안 지역 등이 그 세력권 내에 있었다. 나아가 보성, 고흥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

28) 『알기 쉬운 전남동학농민혁명』 이상식·박맹수·홍영기 공저, 218쪽.

29) 폐정개혁 12개조: ·
01. 동학교도와 정부 사이에는 원한을 해소하고 서정을 협력할 것
02. 탐관오리는 그 죄를 엄징할 것
03. 횡포한 부호를 엄징할 것
04. 불량한 유림과 양반 무리의 못된 버릇을 징계할 것
05. 노비 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06. 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쓰는 평양립은 벗어 버릴 것
07.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락할 것
08. 무명잡세는 일체 거두어들이지 말 것
09. 관리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10. 왜와 간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11. 공사채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할 것
12.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

30) 박낙양은 순천 동학의 핵심 지도자이다. 1893년 보은취회(군장)와 1894년 백산전투에도 참여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2차봉기 시에는 순천의 농민군 5천명을 이끌고 삼례로 참여하였다. 김인배 대접주와 박낙양은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박낙양은 동학농민혁명 후 살아남아 동학이 천도교로 1906년 대고천하하였을 때 광주대교구의 초대교구장이 되었으며 3.1독립운동을 준비하였던 천도교 봉황각의 49일 연성수련회에 참석한 인물이다. 1919년 순천의 저전리 천도교 교당에서 3.1운동을 하였을 때 교구장이었다. 1927년 환원하였다. 출신지는 전남 보성군 율어면 장수리이다.(동학천도교인명대사전) 순천대교구는 순천군교구, 고흥군교구, 구례군교구, 곡성군교구, 여수군교구를 관장하였다.

31) 6월 광양의 망덕진으로 여장협과 연대하였다. 여장협은 광양 성부역의 도움으로 영남의 소를 설치하였다. 재차 9월 광양의 대장 박정주 하동읍 북서쪽 섬진강 상류를 건너 만지등을 공격하고 김인배는 유하덕과 서쪽의 해량포구 남쪽의 광평동등 세방향에서 하동을 공격하였다. 경남서부 동학농민혁명군은 영호동학농민혁명군과 하동에 동학군 본부를 설치하고 영남의 소에 이어 충경대도소를 설치하였다.

6. 영호도회소의 영남 진출 대일항전의 역사

일본은 청일전쟁 평양전투의 승리로 더욱 조선의 내정간섭을 심화하였다. ‘대조선대일본양국맹약’에 의해 전쟁에 필요한 식량과 군수물자 수송의 대부분을 조선 민중이 부담하였다. 조선은 점점 더 자주권을 잃어 가고 있었다.

김개남의 전라좌도 동학농민혁명군은 1894년 8월 25일 남원대회를 열고 척왜양의 봉기를 선포하였다. 임진왜란에 이어 갑오왜란으로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하기 위한 동학의병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7만 명이 집결한 남원대회는 동학의병전쟁의 신호탄이었다. 척왜양을 내세우고 전라좌도의 각 군현에서 전쟁 보급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낙안읍성 전투를 기점으로 본격적 항일전쟁을 시작하였다. 1894년 영호도회소는 동학의병전쟁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였다. 농민군을 해산하지 않고 동학의병을 군편제로 변경하여 각 지역에서 훈련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였다.

영호도회소의 출병은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사실상 제일 먼저였다. 본격적인 대일항전에 들어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영호도회소가 김개남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점, 둘째 7, 8월 동안 영호도회소가 지방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자체 인적·물적 조직과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던 점, 셋째 7, 8월 동안 하동 민보군과 끊임없이 충돌한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전투력이 고양돼 있었던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32]

9월 1일 광양 진상의 섬거역에서 1만 명의 동학군이 운집하였다. 하동부사 이채연은 대구로 도망쳤다. 민포대장 김진옥이 통영에서 대포 12좌를 구하여 방어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김인배와 영호 동학농민혁명군은 전국의 2차 동학농민혁명 기포보다 더 앞선 음력 9월 1일 하동을 공격하여 2일 하동읍성을 점령하였다. 남해 또한 여수의 영호동학군 심송학이 19명의 농민군과 서상포를 통해 입성하여 남해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하동전투에 합류하였다.

호남 지역 동학군들의 경상지역 진출은 (1) 여수의 영호동학농민군들의 남해 입성, (2) 광양 망덕에서 하동부 남쪽 입성, (3) 진상 섬진나루터에서 하동부 북쪽 입성 등 세 방면으로 진행되었다.

9월 2일 새벽 하동부를 점령하였다. 5, 6일 하동에 머문 뒤 영남 방면으로 계속 진격하였다.

진주의 경우는 9월 1일부터 농민들과 동학도들이 조직적으로 봉기하여, 8일에는 73개 면민의 대집회를 읍내 장터에서 가진 뒤 충경대도소(忠慶大都所)를 설치하고 폐정개혁과 일본 및 이에 결탁한 개화파 정

권의 축출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33]

9월 10일 영호동학농민혁명과 경남의 동학농민혁명군이 모여 진주 평거 광탄진에서 보국안민 대회[34]를 열고 9월 11일 남해,[35] 13일 사천, 15일 곤양에서 진주와의 경계인 완사역 등지에서 합류하고, 20일에는 진주성까지 무혈입성을 하였다. 이미 진주·사천[36]·남해·고성 등지의 농민들도 영호

32) 김양식, 영호도회소 1회 학술자료집, 2023, 63쪽.
33) 김준형, 「서부경남지역의 동학군 봉기와 지배층의 대응」(『경상사학』 7·8, 경상대 사학과, 1992)
34) 1894년 진주 보국안민 광탄진 대회 : 진주 각 동리의 대표 13명씩이 나와 참여함
35) 9월 11일 호남의 동학혁명군이 남해로 들어와 읍성을 점령해 현청을 장악하였고, 옥쇄장에게 감옥 열쇠를 받아 옥에 갇힌 동학도 16명을 석방하고, 남해 각지를 돌면서 탐관과 불량한 부호를 징치하고 동학의 이념을 전파하였다. 이때 동학혁명군이 탐관과 부패한 양반을 징치한 방법의 하나로 전해지는 것이 우우통 이야기이다 경상도관찰사 장계 남해현령 이규풍의 보고 (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6) 사천의 삼공형 보고에 의하면 “8일에는 호남의 동도 100여 명이 다시 갑자기 들어와 작청에 묵고, 19일에는 남해로 향하여 모두 가버렸습니다.” 경상도관찰사 장계, 남해현령 이규풍의 보고.

도회소의 출병에 호응 봉기하여 서부 경남지역은 농민군이 지방 권력을 장학한 무방비 상태였다.[37]

진주병사 민준호는 9월 8일 광탄진 집회를 탄압하지 않았고 하동으로 출병하지도 않았다, 당시 진주병사 민준호는 향리와 장교 30명을 직접 인솔하여 김인배의 농민군을 성안으로 안내하고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17일 수천 명의 영호동학농민군이 성내로 들어와 각 관청을 점령하였다. 농민군이 진주성에 들어온 상황은 장관이었다. 농민군 조직은 도통장, 중군장, 우선봉장, 후군장 등의 명칭이 있어 전통적인 군사조직 편제를 갖추고 있었다. 도통장은 수백 명, 중군장은 4. 5백 명, 하동접 7, 8백 명, 후선봉장 5, 6백 명, 후군장 4,5백 명, 도통찰은 1백여 명, 기타 홍양포, 단성포, 남원포, 오산포, 구례포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18일 영호대접주 김인배가 1천여 명을 이끌고 이청으로 들어왔다. 징과 북소리 그리고 포성이 뇌성과 같았으며, 총과 창검의 날카로움이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군진의 앞에 커다란 붉은 기를 세웠는데, '보국안민' 넉 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38]

영호도회소 농민군들은 음력 9월 19일부터 24일 사이에 진주성에서 철수하였다.

경남 서부지역의 관아를 돌며 군량과 무기를 비롯한 군수품을 확보하고 죄수의 석방을 주도하는 등 읍권을 장악하는 중이었다. 나아가 농민군 수천 명을 두 개의 부대로 나누어 부산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웠다.[39] 농민군 주력부대가 김해 방면으로 진격 방향을 잡은 것은 개항 이후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부산을 공격 목표 지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단한 위협을 느꼈으며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과 병참부는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추었다. 일본군은 정찰대를 보내고 실상을 점검하여 서부 경남 일대가 동학군 수중에 들어갔다고 보고하였다. 일본군 남부병참감 엔다 중위와 스즈끼 대위에게 각각 2대 소대와 1개 중대를 이끌고 9월 23일 24일 하동 후방공격을 준비하였다.

9월 29일 영호도회소의 연합부대는 하동 마산포에서 조일연합군 토벌부대 스즈끼 소대와 첫 교전을 하였다. 이것이 서부 경남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운 최초의 전투이다. 29일 일본군 1개 소대와 농민군이 하도 광평동에서 접전하였고, 패전한 농민군이 광양부로 후퇴하였다.

10월 10일에는 금오산 전투에서는 일본군 2개 부대와 농민군 400여 명 사이에 농민군 70여 명 사망하였으며 14일에는 하동 고성산성에서 농민군이 크게 패하였다. 뒤이어 송림전투, 섬거역 전투, 일본군의 무기적 열세에 영호동학농민군은 급격히 후퇴하게 되었다. 재차 공격을 이어 순천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김인배는 광양 성부역에서 진을 친 뒤 섬진과 망덕 두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농민군을 진격시켰다.[40] 이때 섬진강에 빠져 죽은 농민군의 수가 3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전투를 끝으로 영호도회소는 광양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7. 영호도회소의 최후항전

일본은 충청·전라경상도의 3방면으로 군대를 진격시켰다. 최종 목적지는 모두 전라도였다. 일명 '토끼몰이 작전'이었다. 이는 동학 농민군을 전라도의 서남쪽 구석으로 몰아 공격하고자 한 것

37) 『고문서』 2.(서울대 도서관, 1987), 404~407쪽
38) 『고문서』 2. 407쪽.
39) 김준형, 앞의 논문, 94~95쪽.
40) 황현, 『오하기문』 3 갑오시월조, 19쪽

인데 순천·흥양·영암·나주 등도 포함되었다.[41]

영호도회소는 항일투쟁의 근거지로 남원성의 전투에서 참여하였으며, 흥양읍성과, 전라좌수영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였다.

전라좌수사 이봉호는[42] 동학농민군과의 우호적이었다. 여수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순천의 영호도회소와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이봉호의 부하 중에서도 상당수가 동학에 입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이봉호는 면직되고 말았다.

후임으로 음력 7월 초 김철규가 부임했다. 부임도중 농민군의 봉변을 당하였으나 전봉준에게 알려 통행증을 발급받고 집강소 성찰 4명에게 호위토록 하여 무사히 전라좌수영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철규는 좌수영 입성 후 반농민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이를 계기로 영호도회소 농민군과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한편으로는 영호도회소의 대일본 장기전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중요하였으며 5관 5포를 누비었던 바다를 통한 해상의병의 근거지로도 전라좌수영의 공격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1894년 9월 영호도회소의 동학농민군과 시전동 선소마을 윤경삼과 선원동 도원마을 박군하, 돌산의 황종래(참봉)가 전라좌수영 남문을 최초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43] 보급로와 후방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붙잡힌 농민군 3,4명은 효수되어 바다에 던져졌다.

김철규는 전라 좌수영 관하 6개 읍의 삼공형[44]을 불러들였으나, 고흥만이 참석하였다. 지역의 아전들은 농민군과 합세한 것으로 보인다.

고종 31년 10월 28일, 전라좌도수군절도사 김철규의 장계에 따라 동학교도를 토벌하고 섬멸하기 위한 군량미로 광양이 옛 둔전 곡식 가운데 1,000석을 사용하도록 임금이 허락하였다.[45]

고종 31년 11월 3일, 구례에서 거두어들여 전라좌수영 내 곽현진의 거처에 저장하고 있던 쌀 580석과 콩 60석을 군량미로 쓰게 하였다.[46]

11월 10일 영호도회소는 덕양역전투를 승전 후 종고산 위에 주둔하여 좌수영을 세 차례 공격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위협을 느낀 김철규는 돌산에 살고 있는 영관 이주회[47](이풍영,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자)를 통하여 여수 앞바다에 있던 일본 해군 축파호 육전대에 구원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1894년 12월 21일 끝으로 영호도회소의 좌수영 전투는 패전 속에 김인배는 광양으로 후퇴하였다. 김철규는 좌수영 공방전이 끝나기도 전에 농민군 가담자 한 사람에 5냥의 현상금을 걸어 약 500여 명을 구장 터(중앙동 로타리)에서 처형하였다[48]

죽산부사 겸 양호도순무영 우선봉인 이두황은 농민군을 진압하면서 거문지첨사에게 '동학농민군이 오가는 낌새가 있으면 모조리 무찌르고 상황을 급히 보고하라' 고 명령하였다.

1894년 12월 21일, 당시 거문진 첨사였던 권동진이 이두황에게 올린 보고서를 통해 볼 때 동학농민군의 일부가 거문도까지 왔음을 파악할 수 있다.[49]

---

41)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 서울 보진재 1987, 91쪽.
42) 이봉호 전라좌수사: 1892년(고종 29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1894년 8월 (고종29) 이임 첨지중추원사 총어영별장 조선왕조실록,무보,외안,승정원일기.일성록
43)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286쪽.
44) 삼공형은 각 고을의 호장, 이방, 수형리의 세 구실아치를 말하며 줄여서 공형이라고 한다.
45) 『승정원일기』 고종 31년 10월 28일.
46) 「공문편안」 5, 규장작 소장 도서번호 ; 18154, 『탁지부』편, 갑오(1894)년 11월 3일자 공문.
47) 이주희, 이풍영 (1843~1895 고종32): 경기도 광주 태생 1895년 1월 영관으로 순천이 동학군을 토벌하였다, 민비시해 후 대역죄로 처형되었으나 일본 침략자들은 성대하게 추도식을 하였다
48) 김계유, 『여수여천발전사』, 반도문화사, 1988, 267쪽.
49) 「선봉진정보첩」, 『동학농민혁명 사료총서』 1894년 12월 21일.

거문진의 무너진 성가퀴는 허물어진 곳을 고쳐 쌓았고, 8월 이후로 새로 대포를 설치, 날마다 연습하여 힘껏 방어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동학 농민군 여러 놈을 처단 한 이후, 거문진에 소속된 여러 섬에 가까이 다가서는 농민군이 없습니다.

12월 27일 이두황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각 지역에서 달아난 동학 농민군 무리들이 반드시 여러 섬과 제주 등질 숨을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려 모조리 무찌르고 체포하도록 한 것으로 헤아려진다. 거문진은 요충지로서 대포를 설치하여 방어하는 것이 튼튼하고 확실하니, 별도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잘 살펴서 농민군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게 하라.[50]

영호도회소 화양면의 동학농민군들은 장수리 동성산[51]에서 최후 전투를 치렀다. 화양 수문마을에는 '농민군의 돌무덤' 이 있었으나 도로건설로 사라졌다. 나진마을 앞자리도 동학군의 돌무덤 자리가 있었다. 화양면 접주 김지홍은 심송학의 외갓집인 최부집으로 숨어들었으나 발각되어 가장 잔혹한 소살 (화형)을 당하였다. 그의 사촌인 부대장 김처홍은 12월 27일 최후 결전 후 대밭에서 체포되어 장군도 목에서 수장을 당하였다. 옹기배를 타고 남해로 들어가 집강소를 설치하고 광활한 활동을 하였던 심송학은 봉오동 집위 대밭에서 관군에게 체포되어 사형되었다. 그는 후손이 없었다.

최근 그의 아우인 집안어른의 증언을 통해 심송학의 고향마을과 내력을 확인하였다. 심씨 집안 족보에서 이름이 삭제되었으나 후손들은 '큰일을 했던 자랑스러운 조상' 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화양면의 농민군들은 곡화농장 앞에서 90여 명이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 이두황의 동학농민군 토벌부대는 순천으로 퇴각한 농민군을 기습을 하여 순천도호부 사항리(지금의 율촌면 모래내)에서 교전하여 4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세가 역전되자 순천의 향리와 군교, 일부 주민들은 영호도회소의 본영을 습격해 순천 쌍암 출신 영호도집강 정후형 등 수백 명을 도륙하였다. 순천성 안에서 수성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농민군의 시체가 남문터 아래 400여 구가 버려져 있었다고 전해진다. 순천부의 영장 이풍희는 농민군 진압에 가장 앞장섰다. 순천 인근 낙안에서도 농민군의 진압은 계획되었다. 낙안군 동면 출신 이수희는 고흥 흥양 출신의 유복만 세력이었는데 좌수영 공격시 중군으로 참여 했다. 흥양의 동학농민군들은 영호도회소의 핵심세력이었다. 남원성 전투와 하동을 너머 진주성까지 무혈입성을 할 때 빠짐없이 참전하였다.

흥양의 동학농민군들 또한 해산하지 않고 낙안의 벌교, 동강에서 군량미를 확보하였다. 일본의 부산 수비대 후지사카부대가 압박하자 12월 4일 진을 치고 운암산과 주월산에 주둔하여 전투의 기회를 노렸다. 1천여 명의 농민군들은 수차례 흥양읍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진압 당하였다. 수성군의 포군 대장 김정태는 포군을 진격하여 고흥농민군은 대부분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었다. 농민군들은 팔영산 아래 도주하였으나 수성군의 정재홍에게 잡여 12월 11일 고흥읍 관풍정에서 총살형을 당했다.

수성군은 군민들을 모아 변론의 기회를 주었으나 고흥 농민군들은 죽음에 초연하였다. 그들은 당당히 동학의 주문을 외우고 신념을 굽히지 않고 사살되었다. 그날 사망하였던 모이원의 묘를 최근 찾게 되었다. 모이원은 형제였으며 모이강이 형이었다. 두 형제는 동시에 처형되었을 때 모이

50) 「선봉진정보첩」, 『동학농민혁명 사료총서』 1894년 12월 27일.
51) 동성산 전투 후 피냇골이 생겼다.

원의 아내 밀양박씨(남편의 행방을 밀고하지 않음)는 모진 고문을 당한 후였다. 그러나 불탄 시신 속에서 손으로 남편의 치아를 뒤져 찾고 형인 모이강도 찾아 흥양읍에서 도화 덕촌까지 지게로 두 시신을 모시고 운구하였다. 새벽녘 해가 떠오름을 확인 후 동네 입구 자신들이 땅에 가매장하였고 1977년 상석을 설치하며 기록을 남겼다.[52] 모이원은 근처 하도라는 섬의 동굴 속에 은거하다 체포되었다.
흥양동학농민군의 최후는 한말의병으로 3.1운동으로 강력하게 전해져 이어져오고 있다. 광양에서 최후를 맞이한 영호대접주 김인배는 조씨 성의 처남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부가 사지에서 죽음을 얻는 것은 떳떳한 일이요, 다만 뜻을 이루지 못함이 한이로다. 나는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맹세한 동지들과 최후를 같이 할 것이니, 그대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라." 처남은 살아 돌아와서 청년 김인배의 유언을 전해주었다.[53] 영호도회소의 동학농민군들은 보성을 너머 장흥으로 속속 재집결하고 있었다.

일본군의 종군일지에는 1895년 1월 8일 저 장흥에 있는 동학당은 원래 순천부에 있었는데 보병 제10연대의 후비군에게 격퇴당해 이곳 장흥으로 도망쳤다.[54] 라고 기록을 남겼다. 장흥 석대뜰에서 장렬하게 산화한 영호동학군들은 아직도 그 산하에 이 땅을 지켜내고 있다

1893년		순천, 광양, 고흥 보은취회 참가
1894년		1차 봉기 참가
1894년	6월 말	영호도회소 설치
1894년	6월 21일	경복궁 일본군 무단침탈
	9월 1일	하동전투, 섬진진, 망덕으로 도강
	9월 2일	하동읍성 점령
	9월 8일	평거 광탄진 보국안민대회
	9월 10일	진주 충경대도소설치
	9월 11일	남해 점령 여수 영호동학군 심송학서상포입성
	9월 13일	사천 점령
	9월 15일	곤양 점령
	9월 18일	진주성 무혈입성
	9월 29일	하동 광평동 전투
	10월 14일	진주 수곡촌 고승산성전투
	9월	1차 전라좌수영 전투
	11월 10일	덕양역 전투
	11월 16일	2차 좌수영전투
	11월 20일	3차 좌수영전투

52) 2025년 9월 18일 모이원의 후손 모환 구술 채록. 고흥군 도화면 덕촌마을.
53) 김인배: 영호남을 두루 누빈 청년 장군 (파랑새는 산을 넘고, 2008.10.20. 김영사)
54)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14 - 1894년(메이지27), 일청교전 종군일지(日淸交戰從軍日誌) (요시노카와시1894년 7월 23일부터 1896년 12월 22일 귀향) 동학당 토벌대 병사의 종군일지는 이노우에 가쓰오 홋카이도대학 명예교수가 발굴한 사료로 교토대학 인문학 연구소, 『인문학보』 제111호(2018년 3월)에 수록된 것이다.

2차 동학농민혁명과 한국독립운동의 시작

박용규(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전 고려대 연구교수)

• 목차 •

1. 머리말
2. 2차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3. 한국독립운동의 시작
4. 맺음말

1. 머리말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미증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임진왜란 때에도 조선의 국왕은 생포되지 않았다. 그러나 1894년 6월 21일 침략자 일본군에게 국왕 고종이 생포되어 포로가 되었다. 이른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건'이었다.

척사유생들은 경복궁 점령사건을 망국의 시작으로 보았다. 유인석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유인석 의병장은 「격고팔도열읍(檄告八道列邑)」(을미(1895) 12월)에서, "갑자기 갑오년(1894) 6월 20일 밤에 이르러, 마침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와 3천리 강토가 없어져 버렸다.(卒至于甲午六月二十日之夜。更無我朝鮮一國三千里之方)"라고 기술했다.[1] 즉 일본군의 1894년 6월 21일 경복궁 점령으로 우리나라가 멸망하였다는 것이다. 유인석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사건(1894)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전봉준은 『전봉준 공초』에서, 2차 거병 이유를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였다고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심문자 : 다시 군대를 일으킨 연유는 무엇인가?
> 전봉준 : 일본이 개화라 일컬으며 처음부터 한마디 말도 민간에 알림이 없고, 또 군대를 이끌고 우리 도성에 들어가 저녁에 왕궁을 격파하여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하기로, 초야(草野)의 선비와 인민들이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으로 비분강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로운 군대(義旅, 의병)을 규합하여 일본과 싸워 이 사실을 일차로 따지고자 함이었다." [2]

이처럼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서 "충군애국의 마음으로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3]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항일의병의 선구였다.[4] 충군애국의

1) 유인석, 「격고팔도열읍(檄告八道列邑)」, 을미(1895), 12.
2) 『전봉준 공초』, 법부편, 1895(서울대 규장각 소장).
3) 『전봉준 공초』, 1895, 2, 9, 1차 심문.
4) 안병욱, 「1894년 농민전쟁의 역사적 위치」, 『1894년 농민전쟁 연구』5, 역사비평사, 1997, 83~84쪽.; 오영섭, 「한말 의병운동의 근왕적 성격-밀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15, 1997, 57쪽.; 박찬승,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東學徒) 학살」, 『역사와 현실』54, 한국역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봉기한 점은 양반유생의 을미의병과 동학의병[5]이 똑같았다. 을미의병과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항일무장투쟁이어서 적극적 독립운동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한국 독립운동의 시작이다. 위대한 혁명이었다. 간단히 축약하면 1차 동학농민혁명은 신분제 철폐와 집강소 설치라는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었고, 2차 동학농민혁명은 독립과 자유를 위한 항일무장투쟁 즉 독립운동이었다. 독립과 자유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일본의 노예로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일본의 우리나라 보호국화(식민지화) 시작은 1894년 경복궁 점령에서 시작하였다.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로 우리나라 식민지화를 완결했다.

이 글에서는 먼저 2차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전봉준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 의거하여 2차 동학농민혁명이 왜 한국 독립운동의 시작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2. 2차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전봉준(1855~1895)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여, 1894년과 1895년에 걸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웠고, 일본군에 맞서 항거하다가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항일투쟁의 총사령관이었다.



★전봉준 장군이 일본영사관에서 심문을 받은 뒤에 찍은 마지막 모습(1895년 2월 27일) © 무라카미 덴신(村上天眞)

사연구회, 2004, 34쪽.; 유영익, 「동학농민운동의 기본 성격」, 『한국사 시민강좌』40, 일조각, 2007, 199~200쪽.

5) '동학의병' 용어는 오영섭과 유영익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오영섭, 「한말 의병운동의 근왕적 성격-밀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15, 1997, 57~58쪽.; 유영익, 「갑오경장」, 『한국사』40(청일전쟁과 갑오개혁), 국사편찬위원회, 2000, 184~186쪽, 209~211쪽.

1)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건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고종을 포로로 잡고 친일 정권을 세웠다. 경복궁 점령에 명령을 내린 자가 일본군 혼성 제9여단 5사단 혼성여단장 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였다.[6] 경복궁 점령 사건 때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조선군 17명이 사망하였고, 조선군 6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7]

우리나라의 식민지화를 열은 일본의 첫 번째 침략 사건이 1894년 7월 23일(양력) 경복궁 점령사건이었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사건'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청일전쟁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청일전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국화(식민지화)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청군 축출 전쟁이었다.

1894년 6월 23일(양력 7월 25일) 일본 제국은 풍도해전을 시작으로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군은 청일전쟁을 수행하면서, 동학농민군을 섬멸하는 데에 나섰다.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보낸 이유는 척왜(斥倭)을 부르짖는 동학농민군을 제압하고, 동시에 청나라 군대를 조선에서 몰아내어, 조선 지배를 확고히 하는 데에 있었다.

2) 일본의 조선 보호국화 정책 추진

계속해서 일본 내각은 1894년 7월 17일(양력 8월 17일)에 "일본이 직간접적으로 영구히 또는 장기간 조선을 보호국으로 한다."(보호국화안)라고 의결했다.[8] 이 날에 일본이 조선 보호국화를 결정했다. 보호국화는 우리나라를 보호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보호국화는 식민지화를 의미한다. 일본 내각회의에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 내무대신 이노우에 카오루가 참석하여 의결하였다. 일본은 조선 보호국화 정책을 청일전쟁 전 기간(1894년 7월 23~1895년 3월 17일)에 걸쳐 추진하였다.[9]

조선이 일본에게 지배되지 않으려면 초대받지 않고 들어온 일본군을 조선 땅에서 몰아내야 했다.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거병한 것은 외세의 국권 침탈을 막고 나라의 주권을 유지하는 구국투쟁이었던 것이다.

전봉준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소식을 같은 해 7월(양력 8월) 전라도 남원 땅에서 들었다. 당시 그는 전라도 지역을 순시하며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폐정 개혁을 실천하고 있었다.

3) 일본의 강요로 「조일잠정합동조관」·「조일양국맹약」 체결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서, 이 국권침탈 사건을 은폐하고자 1894년 7월 20일(양력 8월 20일) 「조일잠정합동조관(朝日暫定合同條款)」을 조선 측에 강요하여 체결하였다.

---

6)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역사의 위조를 바로잡다: 전사에서 치워진 일본군의 조선왕궁점령』, 고분켄(高文研), 1997.; 나카츠카 아키라 저 박맹수 역,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2002, 64~65쪽, 71~72쪽.

7) 『도쿄아사히신문』, 1894, 7, 28.

8) 무쓰 무네미쓰, 『건건록(蹇蹇錄』, 일본 외무성, 1896.; 무쓰 무네미쓰 저, 나카쓰카 아키라 교주, 이용수 역, 『건건록(蹇蹇錄)』, 논형, 2021, 165~167쪽.

9) 조선 보호국화 정책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 유영익과 정재정의 논고가 있다. 유영익, 「청일전쟁중 일본의 대한침략정책-井上馨공사의 조선보호국화기도를 중심으로-」, 『청일전쟁을 전후한 한국과 열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정재정, 「井上馨-명치정부에서의 역할과 조선침략의 실천」, 『국사관논총』1, 국사편찬위원회, 1989, 10.

외무대신 김윤식(金允植)과 주한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가 서명 날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一. 경성・부산 두 지역 및 경성・인천 두 지역 간에 일본 정부에서 이미 가설한 군용 전신선은 적절한 시기를 참작, 조관을 체결하여 그 存置를 도모하여야 한다.
> 一. 장래 양국의 교제를 친밀히 하고 또한 무역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는 전라도 연안에 하나의 通商港을 개설해야 한다.
> 一. 올해 7월 23일 왕궁 근처에서 일어났던 양국 군대 간의 우연한 충돌사건은 피차간에 이를 추궁하지 않는다.
> 一. 이상 개진한 暫定條款에 서명 날인을 거친 후 적절한 시기를 봐서 대궐 호위를 맡고 있는 일본군인을 모두 철수시킨다." 10)

'조관'의 체결을 통해, 일본은 경복궁 점령 사건을 '양국 군대 간의 우연한 충돌사건'으로 위조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경부선과 경인선의 철도 부설 추진, 경부·경인 간 군용 전신선을 존치시켰다. 이처럼 일본은 조선 지배에 유리한 내용을 삽입하였다.

이어서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이틀 후인 1894년 6월 23일(양력 7월 25)부터 조선 정부에 청군 철수를 요구하였고, 같은 해 7월 26일(양력 8월 26일) 「조일양국맹약(朝日兩國盟約)」을 조선 측에 강요하여 체결하였으며, 청군의 철수를 관철하였다. 외무대신 김윤식과 주한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가 서명 조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이 맹약은 청나라 군대를 조선의 국경 밖으로 철퇴시켜 조선의 독립과 자주를 공고히 하고 한・일 양국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일본은 청나라에 대해 攻守의 전쟁을 맡고 조선은 일본군의 진퇴와 그 양식 준비를 위하여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한다.
> 제3조 이 맹약은 청나라에 대한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면 폐기한다." 11)

「조일양국맹약」은 '조일공수동맹조약'이었다. '맹약'의 체결을 통해, 일본은 조선에서 청군을 철수시켰고, 조선으로부터 일본군 양식 제공권을 얻었다. 이 '맹약' 체결로 일본이 조선 단독 지배의 조건을 확보하였다. 동시에 이 '맹약'을 근거로 일본은 2차 동학농민혁명 진압에 나섰다.12)

4) 전봉준이 고종의 밀지를 읽음

삼남소모사 이건영(李建永)이 가져온 고종의 밀지를 전봉준이 읽었다. 고종의 밀지는

---

10) [(11) 機密 第173號 本97 朝鮮政府와의 假條約締結件](1894년 8월 25일, 발신자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수신자 外務大臣 陸奧宗光), 三. 諸方機密公信往 三, 『駐韓日本公使館記錄』5권, 23～25쪽.; 「잠정합동조관(暫定合同條款)」, 『고종실록』32권, 1894년(고종 31년) 7월 20일.

11) [(12) 機密 第174號 本98 朝日兩國盟約 調印의 件](1894년 8월 27일, 발신자 特命全權大使 大鳥圭介, 수신자 外務大臣 陸奧宗光), 三. 諸方機密公信往 三, 『駐韓日本公使館記錄』5권, 27쪽.; 「조일양국맹약(朝日兩國盟約)」, 『고종실록』32권, 1894년(고종 31년) 7월 22일.

12) 박종근, 『청일전쟁과 조선』, 일조각, 1989, 98쪽.

다음과 같았다.

> “방금 왜구(일본군)가 경복궁을 침범하여 재앙이 종묘사직(국가)에 미쳐 나라의 명운이 경각에 달려 있다. 사태가 이에 이르렀는데 만약 너희들이 한양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재앙과 근심이 곧 닥쳐올 것이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이에 교시하노라. 8월 10일(方今 倭寇犯闕 禍及宗社 命在朝夕 事機到此 爾等若不來 迫頭禍患 是若奈何 以此敎示 八月初十日)” [13]

즉 고종의 밀지는 왜구(일본군)가 범궐하였으니, 너희들이 의병을 이끌고 올라오라는 것이었다. 전봉준이 1894년 8월경 고종의 밀지를 읽고, 아래의 글을 직접 써서 손화중 등에게 회람시켰다.

> “대궐로부터 국왕의 밀지가 와 있다. 왕이 소모사 이건영을 보냈는데, 그가 이곳에 도착하였고, 나(전봉준)는 그와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 밀지의 내용이 왜놈들(일본인들)에게 누설되면, 우리 고종 임금에게 재앙이 미칠 것이니, 매우 조심하여 비밀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의룡・월파・화중 형님들, 회람할 것(自大內 有密敎 送召募使李建永 到此邊 同義 而此說泄於倭 則禍及玉體 愼愼祕密 義龍 月波 和仲 兄宅 輪回)” [14]

5) 동학농민군의 항일 재봉기

전봉준은 국왕의 밀지와 뜻을 같이 했다. 그는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1894년 9월 10일(양력 10월 8일)경에 전라도 삼례에 도착하여 대도소를 설치하고, 동학농민군에게 다시 봉기할 것을 촉구하는 통문을 보냈다.

통문에서 그는 “충의지사(忠義之士)는 같이 앞장서서 정의를 부르짖으라(倡義하라).”고 호소하면서, “이 의거에 호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한 무도(無道)한 자”[15]라고 질타하였다. 그러자 4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합세하였다. 이후 그는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북상하였다. 충청도 은진, 논산, 공주에 이르며 동학농민군이 1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동학의 최고지도자 최시형도 1894년 9월 18일(양력 10월 16일)에 항일전에 나서라고 동학교도에게 총기포령을 내렸다. 최시형은 충북 보은 장내리에서 손병희를 통령에 임명하고, 손병희에게 통령기를 주어 일제히 일어나 항일 전선에 나서게 하였다. 이처럼 그는 손병희에게 동학농민군에 대한 지휘의 전권을 주었다.

6) 2차 동학농민군은 동학의병

전봉준은『전봉준 공초』에서, 2차 거병 이유를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였다고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전봉준을 심문할 때에는 일본 영사가 참가하였다.

---

13) 「義兵召集密諭」,『동학문서(東學文書)』(뮤텔(Mutel).

14) [東學黨事件에 대한 會審顚末 具報](機密號外, 1895년 9월 2일, 발신자 在京城 一等領事 內田定槌, 수신자 特命全權公使 伯爵 井上馨), [別紙 第2號(Ⅰ-2): 同件 密旨의 漏洩防止 指示文], 三. 各領事館其他往復 一,『駐韓日本公使館記錄』8권.

15)『전봉준 공초』, 1895, 2, 9, 1차 심문.

"심문자 : 다시 군대를 일으킨 연유는 무엇인가?
전봉준 : 일본이 개화라 일컬으며 처음부터 한마디 말도 민간에 알림이 없고, 또 군대를 이끌고 우리 도성에 들어가 저녁에 왕궁을 격파하여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하기로, 초야의 선비와 인민들이 충군애국의 마음으로 비분강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로운 군대(의병)을 규합하여 일본과 싸워 이 사실을 일차로 따지고자 함이었다." 16)

"심문자 : 재차 기포는 일본군이 대궐을 침범하였다는 연고로 다시 봉기하였다고 하니, 다시 봉기한 뒤에는 일본군에게 무슨 조치를 하려고 하였느냐?
전봉준 : 대궐을 침범한 연유를 따져 묻고자 함이었다.
심문자 : 그렇다면 일본군이며 외국인으로 경성에 거주하는 자를 모두 몰아내려고 했느냐?
전봉준 : 그렇지 않다. 외국인은 다만 통상만 하는데, 일본인은 군대를 거느리고 경성에 주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토를 침략하는가 하는 의심이 있지 않을 수 없었다." 17)

이처럼 전봉준은 1894년 9월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재봉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군대를 '의려(義旅)' 즉 '의병'이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그는 "초야의 사민(士民)들이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으로 비분강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의려(義旅)를 규합하여 일인(日人)과 접전하고자 봉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의려(義旅)'는 의병과 같은 말이다.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에게 심문을 받을 때, 전봉준은 재봉기한 자신들의 군대를 3번이나 '의병(義兵)'이라고 규정하였다.18)

"이노우에 카오루 : 어찌해서 이 폭거를 일으켰는가?
전봉준 : 작년 6월(음력) 일본병이 경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함께 물리치려고 마침내 의병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임금이 굴욕당하면 신하는 죽는 법, 죽음당하고서 끝낼 결심을 가지고 일어섰다. 의병을 일으키기 전에, 나는 일단 일본군의 한국에 들어온 본지를 확인하려고, 한 통의 조회서를 일본 공사관에 보냈다." (井上公使は試みに其何の故に此の暴擧に及びしやを詰りしに彼答昨年六月(韓曆)日本兵京に入りしと聞き共に斥攘せんとし遂に義兵を擧ぐるに至れり君辱しめらるれば臣死す斃れて後止むの決心を以て起てり義兵を擧ぐるの前余は今一應日本軍入韓の本旨を確め▣とし一片の照會書を日本公使館に送りたるも)19)

2차 동학농민군은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항쟁한 동학의병이었다. 따라서 동학의병은 항일의병이었다. 전봉준은 자신들의 군대를 '동학의병'이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7)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수상의 동학농민군 도륙(屠戮) 명령

1894년 9월 29일(양력 10월 27일)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수상(총리대신)이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병참총감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와 상의하여 동학농민군을 "모조리 죽이라"라는 살육 작전을 결정하였다.20) 이 날에 동학농민군 학살을 전담할 3개 중대 파

16) 『전봉준 공초』, 1895, 2, 9, 1차 심문.
17) 『전봉준 공초』, 1895, 2, 11, 2차 심문.
18) 아오야마 고혜이(青山好惠), 「동학당 대두목을 사로잡다」, 『도쿄아사히신문』, 1895, 3, 5.
19) 아오야마 고혜이, 「동학당 대두목을 사로잡다」, 『도쿄아사히신문』, 1895, 3, 5.
20) 나카츠카 아키라, 「3·1독립정신과 동아시아의 평화」, 『독립정신』74,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4, 3·4, 34쪽.

견도 결정하였다. 같은 날 밤 9시 대본영에 있던 가와카미 병참총감이 “향후 동학당을 모조리 살육할 것”이라는 명령을 조선에 있는 남부병참감부와 인천병참감부에 내렸다.[21]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1848~1899).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같은 해 10월 10일(양력 11월 7일) 인천 병참감부 이토 스케요시(伊藤祐義) 사령관이 인천 병참감부에 출두한 동학농민군 학살 전담 현지 사령관인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에게 “동학당을 죽여 없애라. 동학당 우두머리는 체포하여 경성 일본공사관으로 보내라. 조선 군인들을 모두 지휘하라. 동학 비도들을 강원도와 함경도 쪽, 즉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곳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라는 훈령을 내렸다.[22]

다시 10월 14일(양력 11월 11일)에 일본군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의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 소좌는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일본공사로부터 동학당 토멸에 관한 특별훈령을 다시 받았다.[23]



★동학농민군 학살 사령관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1842～1921) ⓒ 징제

21) 이노우에 가쓰오, 「일본군 최초의 제노사이드 작전」,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모시는사람들, 2014, 77쪽.

22) 「후비보병 제19대대 운영상의 훈령과 일정표」, 『주한일본공사관기록』1권, 153～156쪽.; 「동학당 진압을 위한 제19대대 파견에 따른 훈령」, 『주한일본공사관기록』5권, 65～69쪽.

23) 미나미 고시로, 「동학당정토경력서」,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5(미나미 고시로 문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74쪽.

1894년 10월 15일(양력 11월 12일)에 미나미 고시로는 3개 중대를 이끌고 용산을 출발하여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 동학농민군을 계속 학살하였다.

8) 동학농민군의 우금티 전투 패배

1894년 10월 15일(양력 11월 12일)경에 손병희 통령이 동학농민군 5천 명을 이끌고 논산에 이르렀다. 논산에서 전봉준이 이끌고 온 동학농민군 부대와 연합하였다.

전봉준과 손병희는 형제의 우의를 맺어, 전봉준이 형이 되고, 손병희가 동생이 되었다. 동학농민군은 공주를 향해 나아갔다. 동학농민군에게 공주는 단숨에 서울 한성으로 가는 장소여서, 앞서서 차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전봉준과 손병희는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같은 해 10월 23일(양력 11월 20일)에서 10월 25일(양력 11월 22일)까지, 11월 8일(양력 12월 4일)에서 11월 9일(양력 12월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일본군과 일본군 편에 선 관군과 공주에서 최대의 전투(11월 9일 우금티 전투가 대표)를 치렀으나, 패배하였다. 죽창과 창·칼과 화승총으로 무장한 동학농민군이 스나이더 소총과 무라타 소총과 신식 기관총 등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해 낼 수가 없었다.

동학농민군 학살의 전담 부대였던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미나미 고시로 소좌 휘하의 모리오 마사카즈(森尾雅一) 대위가 지휘한 제2중대가 11월 8일(양력 12월 4일. 이인 전투)과 11월 9일(양력 12월 5일. 우금티 전투)에 걸친 공주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을 대량 학살하였다.

전봉준은 당시의 전투 상황을 이렇게 밝혔다.

> "일본군이 먼저 공주를 차지하였으니, 사태가 접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 2차 접전 후 1만여 명의 군사를 점고한즉 남은 자가 불과 3천여 명이요, 그 뒤에 또 2차 접전 후 점고한즉 군사가 5백여 명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패주하여 금구에 이르렀다." [24]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면서, 1만여 명의 동학농민군의 군사가 3천여 명으로 줄어들고, 급기야 남은 군사가 5백여 명에 불과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동학농민군의 전사자가 많았음을 밝힌 증언이라고 하겠다.

우금티 전투에서 패배한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은 11월 12일(양력 12월 8일) 노성으로 이동하였다. 전봉준은 이곳에서 「경군과 영병, 이교, 시민에게 고시함」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 "금년 6월 개화 간당이 왜국과 손잡고 밤을 틈타 경복궁을 넘어와 임금을 핍박하고 국권을 제멋대로 하였다. ……살육을 좋아하고 인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어, 우리 동학 교도가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소멸하고……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 있거든 곧 의리로 돌아오면 상의하여 같이 척왜척화(斥倭斥化)하여, 조선이 왜국이 되지 않게 하고,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대사를 이루게 할지라. 갑오 십일월 십이일 동도창의소" [25]

24) 『전봉준 공초』, 1895, 2, 9, 1차 심문.
25) 「고시 경군여영병이교시민」, 『나라사랑』제15집(녹두 장군 전봉준 특집호), 1974, 142~143쪽.

이렇게 전봉준은 관군에게 골육상전을 그만하고, 척왜의 기치에 동학농민군과 함께 연합하여 일본군을 물리치자고 호소하였다.

이후 전봉준과 손병희의 동학농민군은 11월 일본군과 금구의 원평 전투(11월 25일(양력 12월 21일))와 태인 전투(11월 27일(양력 12월 23일))를 치렀으나, 패배하였다. 전봉준은 태인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동학농민군을 해산하였다.

전봉준이 이끈 동학농민군의 해산과는 별개로, 전국 각지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계속 전개되었다. 동학농민군은 침략자 일본군에 맞서 항쟁을 지속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하동 섬거역 전투(1894년 10월 21일(양력 11월 18일)), 순천 덕양리 전투(1894년 11월 26일(양력 12월 22일)), 장흥 석대들 전투(1894년 12월 14일(양력 1895년 1월 9일)), 장흥 옥산리 전투(1894년 12월 16일(양력 1895년 1월 11일)), 대둔산 전투(1895년 1월 24일(양력 2월 18일)), 해주 묘운사 전투(1895년 3월 6일(양력 3월 31일)), 해주 송림 전투(1895년 3월 9일(양력 4월 3일))를 치렀으나, 일본군에 의해 진압·학살되었다.

3. 한국독립운동의 시작

1) 독립운동 정의와 독립운동 두 범주

한국의 독립운동은 1910년 일제에 의한 완전 식민지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1910년 이전에도 일제가 국권을 강탈했기에,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무엇이 독립운동인가. 독립운동은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운동을 지칭한다. 즉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운동이다. 독립운동과 같은 의미의 말로 항일무장투쟁, 항일구국투쟁, 항일투쟁, 반일투쟁, 광복운동, 국권회복운동, 주권회복운동, 독립전쟁, 민족운동, 민족해방운동 등이 있다.

독립운동에는 두 범주가 있다. 국권 수호 운동과 국권 탈환 운동이 그것이다. 국권이란 독립국가가 가지고 있는 나라다운 권리이다. 외교권, 군대 보유권, 경찰권, 군지휘권, 경찰권, 통치권, 행정권, 재판권, 영토보유권이 전부 국권에 해당한다. 국가 구성의 세 요소가 영토, 인민, 주권이듯이, 국권은 매우 중요하다.

국권 탈환 운동은 국권이 강탈된 후에 국권을 탈환(되찾기)하는 운동을 가리킨다. 국권회복운동이라고도 한다. 일제는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였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고, 군대를 해산하였으며, 사법권·경찰권을 박탈하였다. 급기야 우리나라를 완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에 국권 탈환 운동 즉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는 을사의병(1905), 병오의병(1906), 정미의병(1907)이 일어났다. 식민지 이후에도 국내항일운동, 3·1운동, 국외항일운동, 무장독립투쟁 등이 일어났다.

국권 수호 운동은 국권이 현저하게 침탈·침해되었을 때 이를 수호하는 운동을 가리킨다. 일제는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을 일으켜 남의 나라의 왕궁을 점령하고 국왕을 포로로 잡았으며, 조선군대의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기존의 민씨 정권을 타도하였으며, 친일 개화파 정권을 세웠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 때에 조선군은 사망 17명, 부상 60

여 명인데 반해, 일본군은 사망 1명, 부상 2명에 달하였다.[26] 사건의 규모가 을미사변보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이 더 컸고 더 폭력적이었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은 남의 나라의 국권을 현저하게 침탈한 사건이었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이 국권침탈 사건이었음을 밝힌 연구는 김상기[27]·조동걸[28]·김희곤[29]·나카츠카 아키라[30]·와다 하루키[31]·한시준[32]에 의해 이루어졌다.

1895년에 일제는 을미사변을 일으켜 남의 나라의 궁궐인 경복궁을 또다시 점령하였고, 왕비 민비를 시해하였고, 친일정권을 수립하였다. 을미사변 때에는 조선의 궁궐 시위대 병사 8~10명과 홍계훈 연대장이 전사하였다. 아울러 궁내부대신 이경직의 사망, 궁녀 2명의 사망, 민비 시해가 있었다. 을미사변도 명백한 일제의 국권침탈 사건이었다.[33]

이에 국권 수호 운동 즉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는 갑오의병(1894), 2차 동학농민혁명(1894~1895), 을미의병(1895~1896)이 일어났다. 기존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었다.[34] 그런데 1990년부터 역사학자의 연구에 의해 '독립운동의 시작은 갑오의병(甲午義兵,1894)과 2차 동학농민혁명(1894)이다.'로 독립운동의 기점이 바뀌었다.

갑오의병, 2차 동학농민혁명, 을미의병은 모두 항일무장투쟁이었다. 이처럼 한국의 독립운동은 1894년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되어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51년간 줄기차게 전개되었다.[35]

---

26) 『도쿄아사히신문』, 1894, 7, 28.

27) 김상기, 「갑오·을미 의병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8, 163쪽.; 김상기,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7, 278쪽.

28) 조동걸, 「의병전쟁의 단계적 이해」, 『동학』 제1집, 동학선양회, 1990, 79쪽.;조동걸,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3, 167쪽.

29) 김희곤, 『안동의 독립운동사』, 안동시, 1999, 44쪽.; 김희곤, 「안동의병장 拓菴 金道和(1825~1912)의 항일투쟁」, 『역사교육론집』23·24, 역사교육학회, 1999, 891쪽.

30) 나카츠카 아키라, 「동아시아 역사속의 동학농민혁명」,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9, 10, 30, 20쪽.; 나카츠카 아키라,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푸른역사, 2002, 215쪽.

31) 와다 하루키, 『러일전쟁』1, 한길사, 2019, 218쪽.

32) 한시준, 「총설: 한국 독립운동사의 이해」, 『한국독립운동사 강의』,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1998, 17쪽.; 한시준, 같은 글, 『한국독립운동사 강의』(개정판), 한국근현대사학회, 한울, 2007, 15쪽.

33) 신석호, 「한말의병의 개황」, 『사총』1, 1955.; 김문자, 『명성황후 시해와 일본인』, 태학사, 2011,

34) 1962년 역사학자 이병도, 신석호, 유홍렬 등이 참여한 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라는 내규를 제정·결정하여, 이 내규를 가지고 공적심사위원들이 독립유공 서훈 심사를 하였다.(윤철상,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적·법률적 검토』(2000 정책연구보고서), 갑오동학농민혁명연구회, 2000, 12, 29~31쪽.; 우윤, 「항일독립운동의 출발로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적·법률적 검토」, 『갑오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과 서훈추진을 위한 학술 세미나』(2001 정책연구보고서), 갑오동학농민혁명연구회, 2001, 12, 19쪽.) 국가보훈부는 이 서훈 내규를 가지고 1962년부터 2024년까지 62년 동안 을미의병(1895) 참여자 149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여 왔다. "1. 박근욱(朴根郁, 1838~미상, 2022, 건국포장)~145. 안승우(安承禹, 1865~1896, 1962, 독립장)"까지 서훈하였다.(박용규, 「을미의병 참여자와 서훈」,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을미의병 서훈 비교 국회 학술 토론회 자료집』, 2023, 8, 25, 53~62쪽.; 박용규, 「한국독립운동의 기점이 된 역사적 사건-1894년 경복궁 점령 사건-」,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4, 8, 13, 43~46쪽.)

35) 한국 독립운동의 범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있다. 조동걸, 『한국근현대사의 이해와 논리』, 지식산업사, 1998.; 『한국독립운동사 강의』, 한국근현대사학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1998.;

2) 기존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

1895년 '을미사변' 즉 민비시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양반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의병을 일으켰다. 이를 을미의병(1895~1896)이라고 한다. 을미의병들이 봉기하여 일본군과 싸우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을미의병의 항일무장투쟁을 독립운동으로 보아, 1962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보훈부는 을미의병 참여자에게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여 왔다.

1962년 독립유공자 서훈이 시작된 시기는 독립운동사 연구가 매우 빈약하였다. 1962년 역사학자 이병도, 신석호, 유홍렬 등이 참여한 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라는 내규를 제정·결정하여, 이 내규를 가지고 공적심사위원들이 독립유공 서훈 심사를 하였다.[36]

1962년부터 을미의병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된 배경으로 신석호가 쓴 「한말의병의 개황」(『사총』1, 1955.)이라는 논문이 작용하였다. 신석호는 논문에서 을미사변과 을미의병, 을사조약과 병오의병, 헤이그밀사사건·군대해산과 정미의병을 설명하였다. 을미의병 참여자 안승우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었다. 이후 모든 의병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다.

이에 반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 서훈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병도는 『신수 국사대관』(1961)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란"·"폭동"으로 서술하였고, 신석호는 『중학교 국사』(1960) 교과서에서 "동학당의 난"으로 기술하였다. 이처럼 1960년대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빈약하였기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서훈될 수 없었다.

3) 새 독립운동의 기점은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운동의 기점과 항일의병의 기점이 을미의병이다."라는 주장을 폐기해야 할 한국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1980년대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항일의병의 시작이 갑오의병이고, 독립운동의 시작이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은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한 것이다. 김상기 교수는 1989년 「조선말 갑오의병전쟁의 전개와 성격」(『한국민족운동사연구』3, 1989.)이라는 논문을 통해, 을미의병 이전에 갑오의병(1894)이 있었다고 하며, 서상철이 주도한 안동의병과 김원교가 주도한 상원의병을 갑오의병의 사례로 들었다.

계속해서 김상기 교수는 1990년에 "갑오의병에 대한 실증은 종래 학계의 통설로 1895년 을미사변 이후부터라고 인정되던 항일의병의 기점이 1894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37]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오·을미의병은 한국근대사에서 항일무

『한국독립운동사 강의』(개정판), 한국근현대사학회, 한울, 2007.; 『새롭게 쓴 한국독립운동사 강의』, 한국근현대사학회 엮음, 한울, 2020.

36) 윤철상,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적·법률적 검토』(2000 정책연구보고서), 갑오동학농민혁명연구회, 2000, 12, 29~31쪽.; 우윤, 「항일독립운동의 출발로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적·법률적 검토」, 『갑오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과 서훈추진을 위한 학술 세미나』(2001 정책연구보고서), 갑오동학농민혁명연구회, 2001, 12, 19쪽.

37) 김상기, 「갑오·을미 의병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8, 161쪽.

장독립운동의 출발로서의 역사적 위상을 뚜렷이 하였다."[38]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항일의병의 기점이 갑오의병(1894)이고, 독립운동의 시작이 갑오의병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논문에서 국권침탈 사건으로 갑오변란(경복궁 침범사건)을 설명하면서, 갑오변란을 계기로 반침략투쟁인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봉기가 일어났다[39]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상기 교수는 자신의 저서(『한말의병연구』(일조각, 1997)에서 전기의병(갑오·을미의병)을 '한말 갑오의병의 항일투쟁'·'한말 을미의병의 항일투쟁'으로 기술했다. 이어서 김상기 교수는 갑오·을미의병이 항일투쟁이기에, 독립운동에 해당한다고 여러 저서와 논문을 통해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전기의병(갑오·을미의병)은 반침략 민족운동이고, 항일무장투쟁의 출발로서의 역사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40]

서울대 국사학과 한우근(1915~1999) 교수는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는 반봉건투쟁, 2차 봉기는 항일전쟁"이라고 1984년에 논증했다.[41] 그는 "제2차 봉기는 순전히 국권을 유린하는 일본군에 대한 구국투쟁으로 나타났다"[42]라고 서술했고, "동학군의 제2차 봉기는 국토와 국민과 국권을 유린하는 일본군에 대한 민족적 항쟁이었다. 외국의 침략에 대한 항거의식은 이제 농민들의 반봉건 투쟁에서 항일 구국 투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43]라고 확고히 논증했다.

국민대 국사학과 조동걸(1932~2017) 교수는 1978년에 "동학혁명의 후기 운동에 이르면 그 자체가 항일 독립운동이었다."[44]라고 논증했다. 계속해서 그는 1980년 『의병들의 항쟁』이라는 저서에서, "동학혁명운동은 처음에 당시의 봉건체제에 대한 혁명운동으로 전개되었으나 후에는 일본군의 파병에 따라 혁명전쟁으로 확대되어 반제국주의운동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학혁명운동이 독립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며 아울러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45]라고 밝혔다.

2차 동학농민혁명에 '독립운동 성격이 있다.'라는 조동걸의 주장은 신용하[46]·정창렬[47]·안병욱[48]·박찬승[49] 교수가 이어받았다.

한국 역사학계는 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사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논증하였다. 조동걸 교수는 『식민지 조선의 농민운동』(『우사 조동걸 저술전집』9, 2010)에서 2

38) 위의 논문, 165쪽.
39) 위의 논문, 16쪽.
40) 김상기,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7, 286쪽.
41) 한우근, 「동학농민군의 제1차봉기」, 「동학농민군의 제2차봉기」, 「역사적 의의」, 『한국사』17(동학농민봉기와 갑오개혁), 국사편찬위원회, 1984.
42) 위의 책, 203쪽.
43) 위의 책, 210쪽.
44) 조동걸, 「농민편」, 『독립운동사』제10권(대중투쟁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255쪽.
45) 조동걸, 『의병들의 항쟁』(민족운동총서편찬위원회), 민족문화협회, 1980, 50쪽.
46) 신용하, 「항일민족운동으로서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8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4, 2쪽.
47) 정창렬, 「동학농민전쟁과 프랑스 혁명의 한 비교」, 『프랑스 혁명과 한국』(미셸 보벨·민석홍 외), 일월서각, 1991.; 『정창렬 저작집1』(갑오농민전쟁), 정창렬저작집 간행위원회 편, 선인, 2014, 346쪽.
48) 안병욱, 「1894년 농민전쟁의 역사적 위치」, 『1894년 농민전쟁 연구』5, 역사비평사, 1997, 83~84쪽.
49) 박찬승,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東學徒) 학살」, 『역사와 현실』54, 한국역사연구회, 2004, 34쪽.

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이고, 독립운동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동학농민전쟁은 독립운동으로 주목해야 한다.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상황이 한국의 주권 상실이나 제한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제의 침략이 감행되어 있었다. 더구나 후기 동학농민전쟁은 직접적으로 일제의 침략군과 싸운 대일전쟁 그 자체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사의 범주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50]라고 강조하였다.

조동걸 교수는 이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이고, 독립운동사의 범주에 포함되며, 한국 독립운동사의 개막이었으며, 항일독립전쟁의 장을 열었다[51]고 논증하였다.

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이라는 조동걸의 주장은 홍영기[52]·정창렬[53]·신영우[54]·배항섭[55]·유영익[56]·조경달[57] 교수도 이어받았다.

조동걸 교수는 1995년에 침략자 일본군이 도발한 갑오왜란에 맞서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전쟁이라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 “1894년 6월 일본군이 경복궁에 난입한 갑오왜란이 일어나자 경북 안동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일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경기도 곤지암까지 진격하였다가 패전하였다. 이때 의병을 일으킨 중심인물은 청풍(현재 제천군 청풍면) 유생 서상철이었다.”[58]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조동걸 교수는 “1894년의 것을 갑오의병이라고 하고 1895년의 것을 을미의병이라 한다.(중략)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항쟁이었다는 점에서 그 후 독립운동의 선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해에 일어났던 동학농민전쟁과 아울러 1894년에 한국독립운동사의 막이 올랐다고 보는 것이다.”[59]라고 논증하였다.

위의 내용은 그의 『한국근대사 별고』[60]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1894년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조동걸 교수는 1894년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포문을 열었다고 주장하였다. 조동걸 교수는 ‘한국독립운동의 특징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은 1894년 갑오왜란에 대항하여 의병이 봉기하고, 이어 일본군의 침략을 맞아 동학농민전쟁이 다시 일어나 독립운동의 포문을 연 후,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50년간 끊임없이 계속되었다.”[61]라고 논증하였다.

---

50) 조동걸, 『식민지 조선의 농민운동』(『우사 조동걸 저술전집』9), 2010, 45쪽.
51)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오늘의 사상신서 8), 한길사, 1979, 36쪽, 39~40쪽.
52) 홍영기,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항쟁』,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6, 44~45쪽.
53) 정창렬,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3. 동학농민전쟁의 역사적 의의」, 『한국사』39, 국사편찬위원회, 1999, 502쪽, 504쪽, 507쪽.
54) 신영우,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1. 동학농민군의 재기」, 위의 책, 434쪽.
55) 배항섭,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2. 반일투쟁의 전개」, 위의 책, 448쪽.
56) 유영익, 「동학농민운동의 기본 성격」, 『한국사 시민강좌』40, 일조각, 2007, 199~200쪽.
57) 조경달 저, 박맹수 옮김, 『이단의 민중반란』, 역사비평사, 2008, 329~330쪽.; 조경달 저, 최덕수 옮김, 『근대 조선과 일본』, 열린책들, 2017, 143쪽.
58) 조동걸, 「청사에 빛나는 한말 의병항쟁」, 『민족정기론』(수정 재판), 경산대, 1995, 257쪽.
59) 위의 논문, 258쪽.
60) 조동걸, 『한국근대사 별고』(『우사 조동걸 저술전집』16), 역사공간, 2010, 36쪽.
61) 조동걸, 『한국근현대사의 이해와 논리』, 지식산업사, 1998, 14쪽.

그는 같은 주장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행한 자신의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62]이라는 저서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이어서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의 『한국독립운동사 총설』[63]에 수록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1894년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한국독립운동사의 막이 올랐다'라고 논증하였다. 특히 수많은 학술 논문과 저서를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이 항일무장투쟁 즉 독립운동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대학 개설서에 반영되었다. 1998년 이래 지금까지 한국독립운동사 개설서 역할을 해온 『한국독립운동사 강의』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은 1894년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되어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전개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대학 강단에서는 『한국독립운동사 강의』를 가지고 가르쳐왔다. "한국 독립운동은 일제의 침략에 대응한 한말 국권회복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일제 침략이 가시화되던 1894년 의병전쟁의 태동과 동학농민전쟁의 2차 봉기는 독립운동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64]라고 기술하였다. 즉 1894년 갑오의병과 동학농민전쟁의 2차 봉기에서 한국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한국독립운동사 강의』에서는 2차 동학농민군과 의병들이 봉기하여,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독립운동은 일제의 침략을 받으면서부터 1945년 해방을 맞기까지 한순간도 단절됨 없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갑오변란'과 1895년 민비시해사건을 계기로 동학농민군과 의병들이 봉기하였고,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65]라고 서술하였다. 즉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사건인 '갑오변란'과 1895년 민비시해사건을 계기로,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군과 을미의병들이 봉기하여 일본군과 싸우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김희곤 교수도 "독립운동사는 1894년부터 1945년까지 51년 동안 전개되었고, 그 가운데 첫머리를 장식한 것이 1894년 갑오년에 일어난 갑오의병이었다. 그런데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인 갑오의병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 안동이었다."[66]라고 갑오의병을 한국독립운동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김용달(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교수도 2020년 논문에서, "1894년 갑오변란과 그에 저항하여 일어난 의병 봉기가 바로 독립운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한 이유는 갑오변란으로 상징되는 일제의 주권 침탈이었다. 유생 중심의 의병이나 동학농민군의 재봉기도 일제의 주권 침탈에 대한 항거, 즉 독립운동이었던 셈이다."[67]

---

62) 조동걸,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291쪽.

63) 조동걸, 『한국독립운동사 총설』(『우사 조동걸 저술전집』3), 역사공간, 2010, 295쪽.

64) 장석홍, 「제2장 한국 독립운동의 시기별 특성」, 『한국독립운동사 강의』, 한국근현대사학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1998, 57쪽.; 장석홍, 같은 글, 『한국독립운동사 강의』(개정판), 한국근현대사학회, 한울, 2007, 58쪽.

65) 한시준, 「총설: 한국 독립운동사의 이해」, 『한국독립운동사 강의』,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1998, 17쪽.; 한시준, 같은 글, 『한국독립운동사 강의』(개정판), 한국근현대사학회, 한울, 2007, 15쪽.

66) 김희곤, 『안동의 독립운동사』, 안동시, 1999, 23쪽.

67)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에서 무장투쟁의 전개와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69, 독립기념관 한국

라고 주장하였다. 즉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들도 2차 동학농민혁명을 “민족독립운동”으로 주장하였다. 청일전쟁 연구의 대가인 일본 나라여자대학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교수는 2차 동학농민혁명이 ‘조선의 민족독립운동’이고, ‘동아시아 민족독립운동의 선구’라고 주장하였다. 나카츠카 아키라는 자신의 저서인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2007)에서 이미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는 근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직면한 민족적・대중적 항일 투쟁이었습니다.(중략) 외국 군대의 침입에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 대규모의 대중적인 민족운동은 1894년 일본군에 의한 왕궁 점령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주력으로 한 항일투쟁이 그 시작입니다.
> 일본은 조선이나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점점 널리 침략해 감에 따라, 이후 각지에서 여러 가지 대중적인 항일운동에 직면합니다만 그 최초의 것이 바로 1894년 한국 동학농민군을 주력으로 한 투쟁이었습니다.” 68)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는 2020년 “동학농민혁명은 동아시아 민족독립운동의 선구, 세계 민족독립운동의 선구”가 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이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을 지키려는 운동”, 즉 ‘민족독립운동’이라는 주장이었다.

> “Ⅱ. 동아시아 민족독립운동의 선구가 된 동학농민혁명
>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은 소수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사를 좌지우지한 시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의 한편으로 그 제국주의의 침략에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을 지키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발전했습니다.
> 동학농민이 일본의 조선 침략에 반대하여 봉기한 것은 1894년이었습니다. 그 8년 후, 1902년에 영일동맹이 맺어집니다. 나는 동학농민혁명의 항일 봉기는 참으로 동아시아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패권체제가 성립할 전야의 시기에 그 제국주의의 ‘패권’에 대한 ‘선구적인 이의 제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의 현재까지 계속되는 세계의 민족독립운동의 선구로 자리매길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69)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는 2021년에 다시 한번 동학농민혁명은 “동아시아 민족독립운동의 선두가 된다.”라고 하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을 지키는 운동”이라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동아시아 민족독립운동의 선두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 역사를

독립운동사연구소, 2020, 2, 374～375쪽.

68) 나카츠카 아키라,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 고분켄(高文研), 2007.; 나카츠카 아키라 지음, 박맹수 역,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 모시는사람들, 2014, 256～257쪽.

69)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세계사의 현단계와 동학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생각한다」, 『나주동학농민혁명 재조명과 세계시민적 공공성구축-자료구축을 중심으로-』(2020년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학술대회 자료집), 나주시, 2020, 10, 28, 14～15쪽.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본제국’에 이어지는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무시하라고 해도 그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을 지키는 운동의 역사는 불멸합니다.” 70)

아울러 이노우에 가쓰오(井上勝生) 교수는 “일본 외교부와 군부는 조선 왕궁을 무력 점령하고 국왕을 압박하여 말 잘 듣는 정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조선인의 조선 전역에 걸친 분노가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일으킨 것입니다.”71)라고 하여, 2차 동학농민군의 항일 봉기 배경을 기술하였다.

이렇게 일본의 역사학자도 2차 동학농민혁명을 “민족독립운동”으로 그 역사적 위상을 평가하였다. 역사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의해, 2차 동학농민혁명도 반침략 민족독립운동이고, 항일무장투쟁이었음이 밝혀졌다. 반침략 민족운동이고, 항일무장투쟁이라는 점에서 갑오·을미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은 똑같았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한국독립운동의 시작인 2차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일제의 보호국화 정책에 맞서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2차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 9월에 일어났다. 침략자 일본군과 2차 동학농민혁명군과의 전쟁이 전개되었다.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의 조선 보호국화 정책에 맞선 항쟁이었기에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러시아·프랑스·독일의 삼국간섭과 2차 동학농민혁명의 끈질긴 항쟁 때문에 일제는 1895년 6월에 조선 보호국화 정책을 포기하였다.

청일전쟁 연구의 대가인 일본 나라여자대학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는 2차 동학농민혁명이 ‘조선의 민족독립운동’이고, ‘동아시아 민족독립운동의 선구’라고 논문과 저서에서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국가보훈부는 을미의병 참여자 정석진·김창균·박근욱·문석봉 등 149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였다.

을미의병 시기 일본군과 전투에서 전사한 의병이 236명이었고, 관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의병이 60명이었다. 전사자가 총 296명이었다. 전사자가 대략 3백여 명이었다.72) 이에 반해 2차 동학농민혁명은 참여자와 전사자의 규모에서 을미의병을 능가하였다.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는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모조리 살육했는데, 희생된 농민군 사망자가 3만 명, 부상당한 뒤 사망한 자를 포함하면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았다.73)

이노우에 가쓰오 교수는 동학농민군 전사자가 3만 명에서 5만 명에 달하였다고 기술했다.74) 청일전쟁 전사자에 관해서 하라다 게이치는 자신의 저서 『청일전쟁』에서 전사

70)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현대 일본의 한국·조선 인식-「근대 일본의 전쟁」의 기억 -」, 『2021년 나주동학농민혁명 한·일학술대회 자료집』, 나주시, 2021, 11, 12, 35쪽.

71) 이노우에 가쓰오, 「일본군 최초의 제노사이드 작전」,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모시는사람들, 2014, 73~74쪽.

72) 김상기, 「한말 일제의 침략과 의병 학살」, 『역사와 담론』제52집, 호서사학회, 2009, 4, 93쪽.; 김상기, 「전기의병의 일본군에 대한 항전」, 『한국근현대사연구』2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2, 50쪽.

73) 나카츠카 아키라, 『현대 일본의 역사인식』, 모시는사람들, 2014, 235쪽.

자는 '일본인 약 2만 명. 청나라 사람 약 3만 명, 조선인(동학농민전쟁의 전사자) 3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다.[75]

을미의병을 능가한 항일 독립운동이 2차 동학농민혁명임에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게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단 한명도 하지 않아, 을미의병 참여자의 서훈과 비교하여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유족이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481명(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료 제공)에 불과하다. 국가 예산 소요도 매우 적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를 바란다.

74) 이노우에 가쓰오, 「일본군 최초의 제노사이드 작전」,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모시는사람들, 2014, 113쪽.

75) 이노우에 가쓰오의 위의 논문, 113쪽.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광주전남항일활동 중심으로

토론문

「**청일전쟁 초기 일본군의 작전에 미친 동학농민군의 영향**」에 대한 토론문
조재곤(서강대학교)

「**동학농민혁명과 영호도회소의 농민군활동**」에 대한 토론문
임송본(남도학연구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항일 의병**」에 대한 토론문
신민호(전라남도의원)

「**2차 동학농민혁명과 한국독립운동의 시작**」에 대한 토론문
한규무(광주대학교)

「청일전쟁 초기 일본군의 작전에 미친 동학농민군의 영향」에 대한 토론문

조재곤(서강대학교)

웨이첸광(魏晨光) 박사는 2017년 러일전쟁 이후 만주철도와 관련한 일본과 러시아, 청국의 교섭 문제로 고려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논문을 완성하였다. 2023년 청일전쟁 시기 조선에 출병한 일본군의 병참운영과 관련한 박사논문을 작성한 이후 이 분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소장 일본 근대사 연구자로 향후 탁월한 연구가 기대된다. 오늘 발표문은 관련 핵심 문서인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과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문서 등을 토대로 하여 청일전쟁 시기 일본군 제5사단의 조선 내 병참선 구축 중 특히 주축이 된 중로 병참선 관련 문제를 분석한 구체적인 연구로 향후 이 분야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아울러 병참선을 둘러싼 동학농민군과의 관련 내용도 일부 제시하고 있는 점이 이 발표문의 특징이다. 전체 내용과 서술 기조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특별한 이견은 없다. 다만 이 분야 연구자이자 토론자로서 소임 상 내용을 좀 더 확산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글을 읽고 생각해 볼 만한 점 몇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1. 먼저 머리말에 연구 동향(연구사)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가 파악하는 이 분야의 기존 연구는 청일전쟁 시기 일본과 조선·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본군의 병참문제(森山茂德, 1987『近代日韓關係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池山弘, 2005「愛知縣に於ける日清戰爭從軍の軍役夫」『四日市大學論集』18권 1호; 宮內彩希, 2010「日清戰爭における朝鮮人人夫の動員」『日本植民地研究』22, 日本植民地研究會; 延廣壽一, 2011『日清戰爭における日本陸軍の兵站』, 神戶學院大學 博士論文; 魏晨光, 2023『근대 일본 병참체제의 성립과 운영 : 청일전쟁 시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사학과 박사논문; 魏晨光, 2024「청일전쟁기 일본 제5사단의 한성집결과 경부 병참선 설치」『東北亞歷史論叢』86),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 제1전선 가설지대 사령관 공병 소좌 요시미 세이(吉見精)의 일기(「入韓日誌」2책, 「從征日誌」1책) 분석(延廣壽一, 2011「日清戰爭と朝鮮民衆 : 電線架設支隊長の日記から見た抵抗活動」『日本史研究』584), 인천 및 용산 병참사령관 공병 대좌 다케우치 세이사쿠(竹內正策)의 일기 분석(魏晨光, 2024「일본군 병참 지휘관이 기록한 청일전쟁과 조선 : 다케노우치 세이사쿠(竹內正策)의『한지종정일기(韓地從征日記)』」『東北亞歷史論叢』83) 등의 연구도 주목된다.

2. 발표자가 제2장에서 언급한 병참총감부 소속 후지이 시게타(藤井茂太)의 활동과 관련하여 토론자도 상세히 언급한 바가 있다. 이하는 그 내용의 일부이다(조재곤, 2024,『조선인들의 청일전쟁』, 푸른역사, 185~188쪽, 299~300쪽).

후지이 시게타 일행은 1894년 8월 1일 서울에 도착하면서 17일간의 경부 간 병참지 답사를 완료하였고, 당일 일본공사관으로 가서 정찰 내용을 설명하였다.[1] 이와 같은 후지이 시게타의 사전계획과 선행답사와 분석에 기초하여 서울과 부산 간의 병참선로를 설치하게 된다. 현지 측량과정에서 그는 조선 정부에게는 '외무서기(外務書記)'라고 위장하였는데 정찰 중 대구부에서 주민 최순시·김현약 등이 던지는 돌에 맞기도 하였다.[2]

1) 藤井茂太, 1936『兩戰役懷古談』, 凹鐵印刷株式會社, 202~221쪽 참조.
2)『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고종 31년 7월 7일.

당시 조선 화폐 결핍 현상에 따라 제5사단 중로 병참감독은 부산 영사와 참모본부를 통해 병참선로 조사 차 조선에 파견한 육군 보병 소좌 후지이 시게타에게 대구관찰사와 엄중하게 담판하도록 조회하였다. 내용은 관청 소유의 한전을 일시 차용하거나 일본 화폐로 교환하는 수단을 취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부산-서울 간 연도의 각 지방관에게 일본 군대 통행을 위한 인마 사용에 편리를 줄 것을 당부토록 하였다.[3] 이와 같은 일본 측의 노력으로 일본화폐 통용문제는 조선의 통리아문을 통해 대구관찰사 및 연도 지방관에게 전달되었고, 같은 내용을 부산 일본인 거류지에 총영사가 포고하였다.[4] 이때 조선 정부가 경상도·충청도 관찰사에게 하부한 관문(關文)은 즉, 「조선 인부 고입 및 임전에 대해 우리 통화로써 한전 대불(代拂)의 건과 조령산맥 수목 벌채의 건」이었다. "일본 병참이 화폐를 발급하는데, 우리 백성이 의심없이 수취하도록 해당 지방관에게 공납(公納) 중 매 1원(元) 동전 5량씩 받아 바꿔주어 민용(民用)에 편리하게 한 후 해당 읍진(邑鎭)의 각항 상납의 해당 읍의 화폐 수량을 헤아려 충납(充納)하여 지장없이 운행하라"[5]는 내용이었다. 일본 병참부에서 발급한 군용수표를 통용시키라는 것으로 부산총영사로부터 각 병참사령관에게 송부되었다.

그런데 점령지역에서 지불준비금 없는 군표발행과 강제유통이라는 통화정책이 군사 공학적 차원에서 전개되었고, 그 결과는 건전한 통화를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 이래 일본군의 전통적인 작전방법의 하나로 이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칭다우(靑島) 점령작전, 1918년 시베리아 출병,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아시아·태평양전쟁(당시 일본 측의 표현에 의하면 '대동아전쟁') 등 대외 침략전쟁에 중국 본토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쟁지역에서 물자 조달을 위한 통화로 기능하면서 아시아 민중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6]

3. 발표자는 대본영이 전신선을 중로로 옮긴 이유는 서로의 전신선이 동학농민군에 의해 빈번하게 절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로라고 해서 일본군에게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중로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음은 낙동강 일대에서 활동하던 제1전선 가설지대장 소좌 요시미 세이(吉見精)의 일기에서 자세히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선행 연구도 참조하면 좋을 듯하다(조재곤, 앞의 책, 292~293쪽 참조).

8월 19일에는 일본군 제1전선 가설지대장 요시미 세이 공병 소좌의 부대가 대구의 조선전신국을 점령하였다. 이때 대구관찰사에게 안동-대구 간 전신주 1,500개 및 소속원을 속히 파견할 것과 전신선 파괴의 변상으로 1,400개를 각기 정해진 지역에 모아 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날부터 일본군은 대구 이남은 조선의 전신선을 사용하게 된다.[7] 그러나 일본군의 전신국 점령 이전부터 대구에서는 인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요시미 세이의 또 다른 보고에 따르면 같은 달 7일에는 주민의 전신선 파괴에 호위병이 발포하여 겨우 진정되었고, 10일에는 낙동-유곡(幽谷) 간의 전선을 절단한 사람을 포박한 일이 있었다.[8] 연이어 대구 20리 정도의 거리에서도 전신주를 파손하고 전선을 절단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제1전선 가설지대 사령관 요시미 세이의 일기(「입한일지(入韓日誌)」 2책, 「종정일지(從征日誌)」 1책)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전신선 공사 개시 전에는 운반력 조달, 이동에 관한 민중의 비협력이 발생하고, 공사 개시 후에는 공사방해, 전신선 절단, 완공 후에도 전신선 절단의 방해 활동이 있었

3) 『陸軍省大日記』「陣中日誌, 第5師團 中路兵站監督本部」, 1894년 8월 16일.
4) 『陸軍省大日記』「야전감독장관 일본화폐통용의 일에 붙여 보고」(8. 24, 야전감독장관 野田豁通).
5) 『陸軍省大日記』「陣中日誌, 第5師團 中路兵站監督本部」, 1894년 9월 1일.
6) 寺田近雄, 1987『日本の軍票』, アド・ユニ, 24쪽; 小林英夫, 1993『日本軍政下のアジア : '大東亞共榮圈'と軍票』, 岩波書店, 4~5, 21~22쪽.
7) 『陸軍省大日記』「陣中日誌, 第5師團 中路兵站監督本部」, 1894년 8월 19일, 20일.
8) 兵站摠監部, 「陣中日誌」, 8월 13일.

다고 파악하고 있다.[9]

이에 대책으로 병참감부에서는 대구의 우마야하라(馬屋原) 소좌에게 전보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조선 순사를 보내고 발생지역에 책임을 지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에도 또 절단하는 경우가 나오면 '책임이 있는 마을은 불태워 버리고[燒拂] 그 인민은 때려죽이겠다[擊殺]는 위엄을 보이며' 담판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당일 또 다른 전보에서는 그곳 부근에는 조선말을 하는 중국인 3명이 조선인으로 변장하여 전선 절단을 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주민들을 시켜 엄밀하게 정찰하고 포박하여 보낼 것을 전보하였다.[10]

4, 3장 끝부분에서 발표자는 8월 15일 대본영은 원래의 계획을 변경하여 제4차 수송부대를 인천항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동학농민군 위협이 남아있는 서로 병참선을 선택하지 않고 '부산-인천 간의 해로를 선택하는 위험을 감수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7월 25일 풍도해전에서 일본군의 승리와 서해안 일부 제해권 확보를 통한 전승의 기운이 작용한 점을 간과한 것이다. 풍도해전으로 일본이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토론자도 언급한 바 있다(조재곤, 앞의 책, 242~245쪽).

국민협회 계열로 청일전쟁 취재기자이자 이 분야 전문연구자이기도 한 주오신문(中央新聞) 조선특파원 가와사키 사브로(川崎三郎)는 "1. 이 개전 이전은 중국 본국과 아산 및 인천 간의 교통·해로를 자유롭게 개통하였지만, 이 전역으로부터 해상권은 거의 우리 일본의 점유로 돌아갔다. 2. 이 개전으로부터 아산의 청병과 해상에서의 해군의 연락이 모두 차단되어 조선에 있는 청병은 전부 고립의 처지에 빠졌고 우리는 육지와 바다에서 헤아려 대응하는 편리를 얻었다. 3. 청국의 해군은 풍도의 패전으로 혼이 나서 절대적 수세를 가지고 황해의 북쪽 모퉁이에 숨었고 우리는 곧바로 공세적 운동으로 나갈 수 있었다"[11]고 풍도해전의 결과로 얻어진 특징적인 사항으로 기술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후일 일본군 수뇌부에서도 청일전쟁을 평가한 일이 있었다. 육군 보병대좌 혼다 진파치(誉田甚八)는 개전 무렵 청국 정부의 작전계획은 해군의 주력을 황해 북부에 모아서 발해만 입구를 누름과 동시에 육군의 해로수송을 엄호하고 조선에 있는 육군과 연락을 취하는 한편, 그 사이에 증파한 육군을 평양 부근에 집중한 후 진군하여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을 격퇴시키는데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12]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계획'에 불과하였고 일본군의 선제공격에 따라 청국군의 해상작전은 수행될 수 없었다.

풍도해전 이전 중국과 조선 아산·인천 간의 해로 통행은 제약이 없었고 청국군은 해로를 경유해서 조선에 들어오는 것은 이틀이면 가능하였다. 그러나 풍도해전 이후 일본해군이 조선의 서해안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자 중국에서 아산과 인천으로 들어오는 해도와 병력수송은 모두 단절되었다. 그 결과 아산의 청군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반해 일본은 방해 없이 해로로 조선에 병력을 증파할 수 있었다. 또한 리훙장은 풍도해전 실패 후 소극적인 방어정책으로 전환하여 황해 북방에 비치하고 있던 북양함대를 더 이상 진전시키는 것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로써 조선 서해안의 청국 군함은 모두 자취가 끊어졌고 이 해전 이후 일본은 조선에 계속해서 육군을 증파함으로써 승기를 잡게 되었다.[13]

---

9) 延廣壽一, 2011, 앞의 논문, 21쪽.
10) 『陸軍省大日記』「陣中日誌, 第5師團 中路兵站監督本部」, 1894년 9월 2일.
11) 川崎三郎(紫山), 1897『日淸戰史』卷1, 博文館, 286~287쪽.
12) 誉田甚八, 1911『日淸戰史講究錄』, 偕行社, 3쪽.
13) 孙克复·关捷, 1980『甲午中日海战史』, 黑龙江人民出版社, 103~104쪽.

「동학농민혁명과 영호도회소의 농민군활동」에 대한 토론문

임송본(함께하는남도학연구원)

‘동학농민혁명과 영호도회소의 농민군활동’에 대한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보국안민, 제폭구민, 시천주, 대동세상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말들입니다. 동학 정신은 그 무엇보다 신분제의 철폐가 가장 혁명적인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부봉기 이후 계속된 폭정에 대한 항거와 행동강령, 폐정개혁 등은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강력한 시발점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우리 민중들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었고, 3·1독립운동과 항일 무장 투쟁에 이르기까지 사회개혁 운동과 자주적 국권 수호운동으로 이어져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민중운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반제, 반봉건의 기치를 내세운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선구자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복궁 침탈 이후 재봉기한 2차 동학운동의 양상은 이전과는 다르게 ‘국토와 국민과 국권을 유린하는 일본군에 대한 민족적 항쟁’으로 발전했습니다. 농민들의 반봉건적인 투쟁을 넘어 외세에 대한 저항하는 항일 구국 투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명맥이 그 이후 의병의 대일항전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토벌의 주도권은 일본군이 동원되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과 동학군의 접전이 수차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선생님의 발표에 별다른 이의는 없지만,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또,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더해 의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차 동학의 성격과 서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는 갑오변란이라는 반(半)식민지 상황에서 일본군을 응징하는 반(反)외세의 성격도 있지만 다른 일면에는 국왕을 보호하려는 근왕주의적 국권수호운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주화약 이후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개혁을 추진하던 반(反)봉건 성격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反)봉건과 국왕보호는 일견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2차 봉기 이후에 상당수가 참여하게 되는 유림들이 참여하는데 그 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혹시 앞에서 제기한 문제가 그들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동학농민혁명이 가진 현재적 의의를 선생님께서 다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다음은 2차 동학을 독립운동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동학 서훈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유로 서훈이 막혀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저도 2차 동학의 경우 서훈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학특별법에 따르

면 제2조(정의)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조(목적)에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국권을 수호하는 독립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 서훈에 대한 여러 부정적 견해 또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 의견을 상쇄할 만한 논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라면 ‘반봉건’의 성격에 더 큰 방점을 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갑오농민전쟁’이라면 훨씬 더 독립운동의 성격이 강하게 보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동학의 경우 일본에 항거한 투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바로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어떤 논리로 이들을 설득해야 이러한 괴리를 좁히고 서훈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발표자나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3) ‘영호도회소’에 관하여

발표자께서는 ‘영호도회소’의 설치와 활동, 그리고 영남 진출과 대일항전, ‘영호도회소’의 최후 항전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호도회소’의 활동에 대해 알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영호도회소’는 설치 초기 6개월 동안 순천에서는 마치 해방구가 연상되듯이 순천의 행정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복궁 침탈 이후 무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진주성을 접수하고 부산 진출을 계획하는 등 그야말로 ‘영호도회소’를 중심으로 순천이 동학혁명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에서 ‘영호도회소’의 동학농민혁명군은 반외세의 선봉으로 후방방위 임무를 넘어, 혁명의 열기를 전라남도 동부지역과 경상도 지역까지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좌수영 전투 이후 ‘영호도회소’의 동학혁명군 세력은 급속하게 약화됩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영호도회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급속하게 약화되었는지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또 영호도회소의 경험이 그 이후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다른 항쟁에 끼친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영호도회소’의 동학혁명사에서의 의의와 한계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에서는 ‘영호도회소’를 알리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과 항일 의병」에 대한 토론문

신민호(전라남도의원)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기점이라고 평소 주장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토론 기회를 얻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일본,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고, 국내에서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하셨고, 해방 후에는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반민족적인 행위의 하나인 거창 양민학살 사건을 파헤쳐 이승만 정권의 부도덕성을 온천하에 드러내게 한 월파 서민호 선생의 빛나는 삶을 존경하였습니다. 선생의 빛나는 삶은, 마치 나다니엘 호돈의 '큰바위 얼굴'처럼 저의 가슴에 새록새록 새겨졌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장흥, 보성을 공격한 일본군이 고흥 동학을 공격하였다고 박해현 교수님 발표에도 나왔지만, 1894년 2차 동학 농민전쟁의 최후의 격전지인 고흥에는 포두면과 도양읍에 동학농민군 군사조련장이 있었습니다. 토론자의 진외증조부이신 오윤영 훈련대장이 고흥 동학조련소의 훈련대장이셨습니다. 동학의 피가 제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학에서 표방한 '대동세상'은 우리 공화국 주인인 '대한국민'이 지향점입니다. 토론자가 동학의 가치를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토론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2차 동학농민전쟁은 '척왜'를 표방하였고, 특히 우리 전남 지역의 농민군들이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항일운동으로 살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의병운동의 원점, 곧 독립운동의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2023년 전라남도의회 제368회 임시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 까닭은 "동학농민혁명의 독립운동 성격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전라남도가 곧 개관할 '남도의병박물관'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곧 의병박물관에 동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학'과 '의병'이 성격이 다르다는 일부 견해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박 교수님의 발표에도 나왔지만, 전남 곳곳에서 일본군과 물러서지 않은 전쟁을 치른 동학 의병들의 활동은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민초들의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기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투쟁이 독립운동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윤석열이 범한 12.3 내란,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내란도 어쩌면 '동학'에서 목숨걸고 지키려한 가치를 우리가 올바르게 살피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을 때 정체성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 연휴 때도 도대체, '국가'. '민족'이 무엇이길래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는 독립운동을 한 선열의 꿈은 단순히 나라의 원수를 갚자는 국수(國讐)적 사고를 넘어

모든 이가 더불어 사는 대동 세상 건설에 있었고, 하지만 이러한 꿈이 주권을 빼앗김에 따라 노예나 다름이 없게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토론자는 ‘의병박물관’의 콘텐츠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토론자는 오늘 발표를 통해, 토론자가 그동안 막연히 알았던 ‘동학농민군’들이 스스로 ‘의병’이라고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이 주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건 항쟁에 나섰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이야기 한, 대원군이 동학농민혁명을 사주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동학농민전쟁이 지닌 가치를 왜곡하는 이들에 의해 교묘히 생산되었을 것이라는 발표자의 주장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임진의병의 후예들이 동학의병에 가담하고, 동학의병에 활동하던 이들이 한말의병으로 합류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동학농민군을 ‘동학의병’으로 부르자는 발표자의 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학 농민군 스스로 ‘의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에도, 그리고 여러 기록들이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의병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의 주장이 잘못이라는 견해 또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토론자의 의무라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른바 ‘동학’과 ‘의병’의 지향점이 동일함에도 이를 같이 인식하지 않으려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발표에도 나왔지만, 만약 동학농민전쟁이 없었다면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일본의 조선 출병도 없었을 것이라 일부 의견 다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문을 보면 영호도회소의 전투나 장흥 전투 등에서는 일본군의 참전이 명백히 드러나지만, 함평, 무안 등 서남부 지역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 부분 보충 설명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학 의병들이 지향한 가치가 왕조에 대한 충성인지, 아니면 국민 주권에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차 동학농민혁명과 한국독립운동의 시작」에 대한 토론문

한규무(광주대학교)

박용규 선생님의 오늘 발표는,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에 포함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시의적절하며, 주장하는 바도 명쾌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도 충분합니다.
토론자가 이해한 발표자의 주장 및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사건'으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항일의병의 선구(1쪽)"이며 "항일무장투쟁이어서 적극적 독립운동(2쪽)"이었다. 전봉준도 심문을 받을 때 2차 농민군을 "3번이나 '의병'이라고 규정했다(7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차 농민군(=동학의병)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1962년 이병도·신석호·유홍렬 등이 참여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라는 내규를 제정하여 이 내규를 가지고 이후 서훈심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12쪽).
그런데 "1990년대부터(12쪽)" 또는 "1980년대 이후부터(13쪽)" 갑오의병(안동의병·상원의병)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도 "일본군에 대한 구국투쟁(한우근, 13쪽)"·"그 자체가 항일독립운동(조동걸, 14쪽)"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신용하·정창렬·안병욱·박찬승·홍영기·신영우·배항섭·유영익·조정달 등도 이를 계승했다는 것이다(14쪽). 그리고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습니다.

> 을미의병을 능가한 항일 독립운동의 2차 동학농민혁명임에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게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단 한명도 하지 않아, 을미의병 참여자의 서훈과 비교하여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
> 유족이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481명(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자료 제공)에 불과하다. 국가 예산 소요도 매우 적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시를 바란다(19쪽).

이제 토론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이하 '2차 봉기')'를 독립운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1990년대부터 진행되었다면, 그에 대한 반론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 논거가 궁금합니다.

둘째, 유영익과 오영섭이 2차 봉기 농민군을 '동학의병'이라 불렀다는 것과(2쪽 각주 5) "전봉준은 자신들의 군대를 '동학의병'이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7쪽)"는 것은 다릅니다. 전봉준이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 카오루에게 받은 내용을 보면 "전봉준은 재봉기한 자신들의 군대를 3번이나 '의병'이라고 규정(7쪽)"한 것은 맞지만 '동학의병'이란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한국 독립운동의 시작(2쪽)"이며, "1차 동학농민혁명은 신분제 철폐와 집강소 설치라는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었고, 2차 농

민혁명은 독립과 자유를 위한 항일무장투쟁 즉 독립운동이었다(2쪽)"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이냐의 문제로, 논자에 따라 개념이 달라질 수 있기에 조심스럽습니다만,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입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2차 봉기'를 '독립운동'로 볼 수 있다는 데는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당시의 농민군을 '갑오의병'으로 부르는 학자는 유영익·오영섭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발표자는 당연히 '갑오의병'이란 용어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병'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당시 희생자 수에 비교하면 턱없이 적지만, 그래도 "유족이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481명"은 독립유공자 심사대상자 수로는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이들 481명의 근거에 대해 검토한 적은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국가 예순 소요도 매우 적다"고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발표자는 '독립운동'의 정의에 대해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운동을 지칭"하며, 그 범주는 "국권수호운동과 국권탈환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10쪽).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의'에따르면 '국권수호운동'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범주'에 동의하므로, 발표자의 '정의'를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빼앗긴"+"빼앗길"이 되겠지요.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아주 사소한 지적 내지 제언들입니다. 참조해 주시고, 굳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발표자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쪽수	내용	질의/제언
1	"침략자 일본군에게 국왕 고종이 생포되어 포로가 되었다."	'포로'보다는 '인질'이 적절하지 않을지?
2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로 우리나라 식민지화를 완결했다."	'정미조약'은 '늑약'이 아닌가? 왜 유독 '을사조약'만 '늑약'인지?
		"식민지화를 완결"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미 1905년에?
2/10	'을사늑약'(2쪽), '을사조약'(10쪽)	용어의 통일이 필요
2	"독립과 자유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국가에게"와 "국민에게" 등의 수식이 붙으면 어떨지?
3	'경복궁 점령사건'과 '경복궁 점령 사건'의 혼용	띄어쓰기의 통일이 필요
3	'청군'과 '청나라 군대'의 혼용	용어의 통일이 필요
9	"동학농민군을 계속 학살하였다"	민간인이 아닌 (농민)군과 (일본)군 사이의 전투에서 '학살'이란 용어가 절절한지?